



#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1

박현숙 외

## 갈래 익히기

### 소설

006~007쪽

- 1 (1) X (2) O (3) X    2 (1) 발단 (2) 갈등 (3) 최고조  
 3 ④    4 ①    5 간접 제시    6 (1) 내적 (2) 인물, 인물

1 (1)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소설이 그렇지는 않다.  
 (2) 주제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으로, 작품 속에 구현된 중심 의미와 연관된다.  
 (3)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인물은 작가의 상상으로 창조된 작품 속 등장인물이고, 사건은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과 행동이며, 배경은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2 (1)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것은 '발단' 단계이다.  
 (2)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위기' 단계에서는 소설 속 갈등이 심화되면서 긴장감과 위기감이 조성된다.  
 (3)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 단계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3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보는 이와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와 보는 이가 항상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③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관찰하고(보는 이),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이나 주체(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도 한다.  
 ② 같은 대상에 대해 말하더라도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 등이 달라진다. 즉, 말하는 이나 보는 이에 따라 작품의 세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⑤ 말하는 이는 작품 안에 등장인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

4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한다. 즉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심리 및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③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⑤ 작품 속의 인물인 '나'가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시점이지만, 1인칭 시점

에서는 서술자인 '나'의 심리와 '나'가 바라본 사건의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 사건의 정황이나 다른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5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인 반면, 간접 제시는 주로 외양 묘사, 말투와 대화 등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손이 뽕뽕 언 아이에게 자신의 장갑을 건네는 행동을 통해 그의 따뜻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간접 제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6 (1)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2) 외적 갈등 중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면서 겪는 갈등을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한다.

### 시

008쪽

- 1 (1) O (2) O (3) X    2 ①    3 ④

1 (1) 운율은 시의 음악적 요소로, 리듬감을 형성하여 노래하듯이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2) 시의 구성 요소는 운율, 주제, 심상이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고, 주제는 시인이 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며,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이다.  
 (3)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시의 회화적 요소에 해당한다. 시의 의미적 요소는 주제이다.

2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존재로, 작품 안에서 '나'로 직접 드러나기도 한다. 이때 말하는 이인 '나'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일 수도 있다.

- 오답 풀이** ② 시적 대상과 상황만 묘사할 뿐,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작품 안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작품 안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로 설정하여 시적 대상을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가치관을 전하기도 한다.  
 ④ 말하는 이는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고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제를 전달한다.

3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어떠한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미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모습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설명하는 글

009쪽

- 1 (1) 이해 (2) 처음 (3) 개인적, 사실 2 (1) 정의 (2) 인과  
 (3) 분석 (4) 비교 3 ④

- 1 (1)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과 글을 쓴 동기 및 목적을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3)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2 (1)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은 '정의'이다.  
 (2)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이다.  
 (3)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4)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은 '비교'이다.

- 3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에 나타난 설명 대상과 그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글쓴이의 주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과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②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

010쪽

- 1 (1) O (2) O (3) X 2 (1) 본론 (2) 타당성 (3) 구체적인 사실, 일반적인 원리 3 ⑤

- 1 (1)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이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권위 있는 사람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3)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설명하는 글이다.

- 2 (1) 주장하는 글의 '본론' 부분에서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2) 논증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 3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그 근거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글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화제를 제시하였는지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발표

011쪽

- 1 (1) O (2) X (3) O 2 ③ 3 ④

- 1 (1)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2) 발표의 구성 중, 발표의 주제와 목적,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하는 것은 '도입'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발표의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3) 발표를 할 때에는 '계획하기' 단계에 발표의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과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발표하기 과정 중, 발표 내용을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과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한다.  
 ②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청중과 소통하며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④ '평가 및 점검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준비와 실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보완한다.  
 ⑤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 3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한 후, 자료에 담긴 내용에 따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표, 그림,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영상 자료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 01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소단원 한눈에 보기

016~017쪽

- 1 (1) ○ (2) × (3) ○    2 ④    3 첫사랑    4 (1) 목적 (2) 경제 (3) 한계, 효용    5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6 (1) ○ (2) × (3) ○

1 (1)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란 자신의 독서 상황과 읽기 전·중·후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조정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2)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읽기 과정을 개선하는 활동이지 글의 내용에서 부족한 점을 찾는 활동이 아니다.

(3) 글을 읽기 전에 독서의 형태나 독서 시간,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독서 상황과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선정해야 한다.

2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므로, 읽는 중의 점검 및 조정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글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한 리필 식당에서의 만족감, 첫사랑의 강렬함 등 일상적인 사례 속 인간의 심리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첫사랑을 유난히 특별하게 느끼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4 (1)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독서 상황과 읽기 목적, 자신의 관심 분야와 독서 수준, 책의 제목과 표지, 분량, 글의 난이도 및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서아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경제 분야의 책을 읽고 이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우리는 왜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할까」를 읽기로 하였다.

(3) 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를 '한계'라고 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한다.

5 <보기>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서 쓸 때 우리가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6 (1) 무한 리필 식당에서 첫 번째 접시의 음식을 먹을 때 얻는 순

간적인 만족감이 가장 크다.

(2) 첫 번째 접시 이후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추가 소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3) 무한 리필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수록 한계 효용이 줄어들면서 추가 소비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다 결국 음식을 그만 먹게 되기 때문에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 활동 응용 문제

020~028쪽

- 1 ④    2 ④    3 배경지식 떠올리기    4 ⑤  
5 ⑤    6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7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이다.    8 ⑤    9 ①    10 처음 겪는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1 ④    12 ⑤

1 서아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청소년이 읽을 만한 경제 분야의 책을 골랐다. 따라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을 담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2 서아는 책의 제목과 표지를 통해 ㉠이 경제 지식을 문학 작품과 엮어서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음을 확인하고, 책의 분량도 적절하여 ㉡을 읽기로 결정하였다.

오답 풀이 ① 서아가 책의 제목과 표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청소년의 취향을 반영하였는지가 아니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이다.

② 책의 표지에 일러스트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서아는 글의 제목에 흥미를 느껴 책을 선정하였다.

③ 경제학자들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책은 친구들의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⑤ 경제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보는 것으로, 자신이 읽기에는 내용이 어려워 보여 제외하였다.

3 <보기>에서 서아는 글의 부제에 제시된 소설 「소나기」에 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이처럼 글을 읽기 전에 제목과 차례를 훑어보며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볼 수 있다.

4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차례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글을 읽기 전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차례에 제시된 제목이나 부제가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은 글을 읽기 전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5 무한 리필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 전체를 '총효용(전체 효용)'이라고 했을 뿐, 무한 리필 식당에서 총효용을 늘리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한계'는 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를 의미한다.  
 ②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③ '한계 효용'은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④ '무한 리필 식당에서의 한계 효용'은 음식을 한 접시씩 추가로 먹을 때마다 느끼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말한다.

6 무한 리필 식당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수록 접시에 담은 음식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원리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7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차 줄어들면서 추가 소비도 함께 줄어들고, 결국 언젠가는 소비를 멈추게 되기 때문에 무한 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계 효용이 줄어들기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5어절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8 글쓴이는 첫사랑을 다룬 소설 「소나기」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설렘이나 두근거림 같은 감정의 강렬함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점차 느낌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9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한계 효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추가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언젠가는 소비를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무한 리필 식당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를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③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첫 여행의 즐거움, 처음으로 두발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 중학교 입학 첫날의 긴장감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설렘이나 두근거림 같은 감정의 강렬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이를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10 사람의 감정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 어떤 경험든지 처음 겪는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사람

들은 가장 강렬하다고 느꼈던 첫사랑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처음 겪는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1 글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위해 첫사랑에 관한 소설 「소나기」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읽은 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한 ④는 글을 읽기 전에 차례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읽기 전 점검 및 조정 활동에 해당한다.

12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며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⑤는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읽기 과정의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활동 응용 문제**

029쪽

- 1 ③      2 ⑤

1 <보기>는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비슷한 내용을 좀 더 쉽게 다룬 글을 찾아 읽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니거나 글의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2 ⑤는 씹지 않고 식사하면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없듯이, 생각하지 않고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내용을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이다.  
 ②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라는 의미이다.  
 ③ 끈기 있게 반복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④ 독서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이다.

- 1 ③    2 (1) O (2) X (3) O    3 ⑤    4 ②  
 5 (1) O (2) X    6 ②

1 평소 자신이 쓴 글의 갈래는 읽을 글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서의 형태나 독서 시간,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독서 상황과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을 선정해야 한다.

2 (1) 글을 읽기 전 점검과 조정 방법에는 제목이나 차례 등을 훑어보기, 글의 내용 예측하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배경지식 떠올리기 등이 있다.

(2)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는 것은 글을 읽기 전 단계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글을 읽은 후 단계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과 조정 방법이다.

(3) 글을 읽은 후 점검과 조정 방법에는 중심 내용 요약하기, 주제 파악하기,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 정리하기,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 등이 있다.

3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읽기 과정에 있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며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4 서이는 관심이 있는 경제 분야의 책을 읽고 이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 분야의 지식을 문화 작품과 엮어서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로 결정한 것이다.

5 (1)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를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 즉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2)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뿐만 아니라, 무한 리필 식당에서의 만족감이나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과 같이 인간의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처음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강렬하다고 느꼈던 감정인 첫사랑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한다.

**오답 풀이** ①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은 무한대로 보장되지만, 음식을 처음 먹을 때의 만족감이 가장 크고 음식을 추가로 먹을수록 만족감이 점차 줄어든다.

③ 음식을 추가로 먹을수록 포만감은 점차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포만감을 넘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즉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추가로 먹을수록 만족감은 점차 줄어든다.

④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추가로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새로운 음식을 처음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음식마다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사람들이 첫사랑과 비슷한 이야기를 찾는 것은 가장 강렬하다고 느꼈던 감정인 첫사랑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첫사랑이 특별한 경험을 한 유일한 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해력 키우기

- |1단계| 1 대입하다    2 뜻뜻하다    3 수록되다  
 4 명언    5 체감    6 지불하다    7 매물  
 8 전공하다    9 운영하다    10 보완하다    11 수준  
 12 사치    13 뻘하다    14 능동적    15 유난히

- |2단계| 1 부제    2 소비    3 일지    4 조정  
 5 재화    6 효용    7 경제적    8 난이도  
 9 만족감    10 기회비용    11 배경지식  
 12 비합리적    13 선정하다    14 훑어보다

- |3단계| 1 각색되어    2 가정할    3 포만감  
 4 개선하기    5 달성    6 예 우리 강아지는 가족 중에서 유독 나를 잘 따른다.    7 예 우리는 인원 점검이 끝나자 체험 학습 장소로 출발했다.    8 예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팀이 골을 넣자 관중들은 열광했다.    9 예 사소한 오해로 두 사람의 싸움이 초래되었다.    10 예 나는 졸업 앨범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했다.

|1단계|

- 1 **오답 풀이** 다짐하다: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하다.  
 2 **오답 풀이** 강렬하다: 강하고 세차다.  
 3 **오답 풀이** 적용되다: 알맞게 이용되거나 맞추어져 쓰이다.  
 4 **오답 풀이** 논리: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등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  
 5 **오답 풀이** 불쾌감: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6 **오답 풀이** 요구하다: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다.  
 7 **오답 풀이** 무한: 수(數), 양(量), 공간, 시간 등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  
 8 **오답 풀이** 심화하다: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 또는 깊어지게 하다.

- 9 **오답 풀이** 설립하다: 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만들어 일으키다.
- 10 **오답 풀이** 채우다: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등을 가득하게 하다.
- 11 **오답 풀이** 한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등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 12 **오답 풀이** 손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집.
- 13 **오답 풀이** 엮다: 글이나 이야기 등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일정한 순서와 체계에 맞추어 짜다.
- 14 **오답 풀이** 주관적: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
- 15 **오답 풀이** 각별하: 어떤 일에 대하여 유달리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로.

### 소단원 평가

038-039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①    05 첫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느끼는 감정 또한 소중하다.    06 ①

01 서아는 관심 있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청소년이 읽을 만한 경제 분야의 책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서아가 찾는 특정 주제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읽으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나)의 차례에서 ①의 제목은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부제에는 소설의 제목과 경제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①에는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글을 읽기 전 점검과 조정 단계에서는 차례를 살펴보고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례에 제시된 '한계 효용'의 뜻이나 부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글을 읽기 전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며 「소나기」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같이 각 글의 부제에 소설의 제목과 경제 원리가 제시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글을 읽기 전 점검과 조정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례에 제시된 소설 「소나기」의 중심 줄거리를 떠올려 보는 것은 적절하다.

03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글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가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보거나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04 글을 읽는 중에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은 이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첫사랑'이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등이 중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이 잘 이해되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며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③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가)의 '한계 효용'에 대한 내용과 (나)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질문을 바탕으로,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을 '한계 효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④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하는 경험에서 느낀 뿌듯함이 이후 경험에서 줄어드는 사례를 떠올리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감정의 강렬함에도 적용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내용이다.

⑤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사람의 감정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말하였고, (마)는 어떤 경험이든 처음 겪을 때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사랑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사랑할 때 느끼는 강렬함의 정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소설 「소나기」를 언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처음 겪을 때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처음보다 강렬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뒤에 느끼는 감정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첫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경험하게 되는 감정 또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첫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느끼는 감정도 소중함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6 (다)에 따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서 쓸 때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재화를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한계 효용'이다.

## 02 문학 속 말하는 이나 보는 이

### 소단원 한눈에 보기

042~045쪽

1 (1) O (2) X    2 (1) 1, 주인공 (2) 밖, 관찰자    3 ㉓

4 ㉓    5 (1) O (2) X (3) X    6 (1) 논밭, 트랙터

(2) 가족    7 ㉓    8 (1) O (2) O (3) X    9 (1) 쪽방

(2) 꽃, 나무    10 ㉓    11 (1) O (2) X (3) O

12 화자

1 (1) 문학 작품에서 ‘보는 이’란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관찰하는 인물이나 주체를 말하며, ‘말하는 이’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이나 주체를 말한다.

(2)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나 보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말하는 이나 보는 이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주제 등도 달라진다.

2 (1)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

(2)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3 ‘나’는 무작정 기차를 타고 아빠가 있는 서울에 가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아빠를 보고 실망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아빠를 보며 희망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후 ‘나’는 아빠를 떠올리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 따라서 ‘나’가 집에 돌아와 아빠와의 화해를 결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이 글은 개학 후 교실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던 날을 떠올리는 ‘현재’에서 여름 방학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온 ‘과거’로 시간이 거슬러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 극적 구성을 통해 문학적 재미를 제공하나, 인물의 갈등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현재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②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면 사건이 시간 순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5 (1) 이 글은 ‘나’가 개학 후 교실에서 여름 방학 때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2) 이 글의 주인공이자 말하는 이인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영천에 살고 있다.

(3) 이 글은 아빠를 굳게 믿고 사랑하는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관한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6 (1) 아빠는 서울에서 돈을 벌어 논밭과 트랙터를 다시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이 글은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어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7 ‘나’는 동생을 아끼며 동생을 잘 돌보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에게 통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여기저기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가 동생과 할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8 (1) ‘나’는 사촌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부 상을 받아야 한다고 타박하는 할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2) ‘나’는 버스에서 잠든 연서가 다칠까 봐 의자에 바짝 붙어 서 있을 만큼 동생을 아끼지만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한다.

(3) 아빠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든 서울살이를 견디고 있으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1) 아빠는 서울에서 쪽방에 살며 ‘나’와 연서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다.

(2) 아빠는 ‘나’에게 꽃이나 나무도 옮겨 심었을 때 새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힘이 들지만 결국은 꽃과 잎을 피워 내는 것처럼, 자신도 서울에 적응하여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0 아빠를 만나고 온 후 ‘나’에게 생라면은 아빠의 희망과 용기,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의미하고, ‘나’는 이러한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생라면을 먹는다.

11 (1) 이 시는 물고기에서 나는 비위가 상하는 냄새라고 여기는 비린내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2) 물고기의 관점에서 비린내는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향기라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시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뻔한 말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물고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12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거나 관찰하고,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 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제로, ‘화자’라고도 한다.

### 내용 확인 문제

050~066쪽

1 ㉓    2 ㉓    3 ④    4 오만 원    5 ④

6 ㉓    7 ㉓    8 태권도 사범    9 (1) X (2) O

10 ㉓    11 꽃이나 나무    12 ㉓    13 ㉓

14 ②    15 ②    16 생라면    17 ㉓

18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나는 법이거든요.

1 '나'는 아침마다 늦잠 자는 버릇 때문이 아니라 고모네 집에 가 기 싫어서 얼른 일어나라는 할머니의 성화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말로 보아 '나'의 이름이 '한연 우'이고, 교실에서 선생님 몰래 생라면을 먹으려다가 들켜 꾸중을 듣는 모습을 통해 학생임을 알 수 있다.

②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라고 '나'를 채근하고, 마루 끝에는 연서가 오도 카니 앉아 있는 장면을 통해 '나'가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다.

2 고모네 집에 가 기 싫어서 늦잠을 부리는 '나'와 달리, 연서는 이 미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할머니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나'를 나무라는 것으로 보아, 연서가 나이에 비 해 어른스러움을 알 수 있다.

3 '나'는 자신이 태권도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연서가 고모에게 자 랑하는 것을 보고, 팔꿈치로 연서를 치며 인상을 쓴다. 즉, '나'는 사춘 성호의 학업 성적을 칭찬하는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태권도 대회 결과를 자랑하는 연서를 못마땅해하고 있으므로, 태권도 대 회에서 1등 한 것을 고모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은 적 절하지 않다.

4 할머니는 고모네 집에 가 기 싫어하는 '나'를 달래며 오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준다. 즉,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만 원을 포기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나선 것이다.

5 할머니의 타박이 듣기 싫어 밖으로 나가려는 '나'에게 용돈을 주 며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 냈으니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하는 고모 의 모습을 통해 '나'를 생각하는 고모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6 할머니의 말을 통해 '나'의 아빠가 객지에서 생활하며 '나'와 연 서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모가 '나'와 연서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내 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7 '나'는 둘 밥해 먹이기 힘들니 아빠한테 가서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할머니 말대로 아빠하고 같이 서울에서 살까 고민에 빠진다. 따라서 '나'가 할머니의 진심을 알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서울 가서 아빠를 놀라게 해 줄 생각에 한껏 들떠 가슴이 두근거렸다.

② 할머니는 말도 없이 서울행 기차를 타고 연락도 받지 않은 '나'에게 화 가 나서, 아빠한테 가서 살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였다.

④ '나'는 연서를 떼어 놓고 아빠와 서울에서 살까 고민하다가, 연서를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엄마의 부탁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다.

⑤ '나'는 보따리를 양손에 잔뜩 든 할머니를 보고,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도 악착같이 농사를 짓는 '나'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걱정하였다.

8 '나'는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면서 피약벌을 견디는 버릇 보고, 버들이 폭풍우를 굳세게 버텨 알곡이 되면 그 밥을 잘 먹고 자라 태권도 사범이라는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9 (1) '나'는 서울의 풍경이 시골 동네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동 대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였다.

(2) '나'는 자신의 방을 보면 실망할 것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아 빠가 엄마의 말과 달리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았거나 밑반찬을 버리지 않고 오래 두었다고 짐작한다.

10 아빠는 '나'가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한다. 이는 작은 방에 살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 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였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아빠는 자신을 꽃이나 나무에 빗대어, 꽃이나 나무가 시간과 힘을 들여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과 잎을 피어 내듯이 자신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서울에 적응하여 잘 살 것이라고 말 하며 '나'에게 든든함과 안도감을 전하고 있다.

12 '나'는 창문도 주방도 화장실도 없는 방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함께 고향집으로 가자 고 말한다.

13 아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목표를 이룬 후 고향집에 돌아가 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아빠가 성공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지 않는다.

14 쪽방은 월세가 낮아 '나'와 연서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 주 기 좋은 곳으로, 가족에 대한 아빠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5 '나'가 정류장에 내리니 연서가 손 선풍기와 차가운 얼음물 한 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나'가 더위를 먹을까 봐 걱정스 러운 마음에 할머니가 연서를 정류장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연서는 '나'를 가족이지 말라는 고모에게 할머니가 잘못했 다고 한 말을 전하며, 할머니에게 아담맞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나' 를 안심시켜 주었다.

③ '나'는 아빠가 새 트랙터를 사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 문에 서울 삼촌네 갔다 놀이공원을 두 군데나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기혼 이의 말에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④ '나'는 연서에게 자신과 연서가 아빠의 희망이라고 전해 주고 싶었지 만, 부끄러워서 결국 말하지 못하였다.

⑤ '나'는 돈 벌어서 근사한 트랙터를 타고 '나'와 연서, 할머니 앞에 나타 나겠다는 아빠의 당당한 모습과 희망찬 웃음을 보고 '나'의 마음도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16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 지 않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생라면을 먹는다. 이는 아빠의 희망 과 용기,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떠올리며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하 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17 '나'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할머니에게 미안함과 화해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할머니는 웃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18 '나'는 쪽방에서 고생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활동 응용 문제** 068-071쪽

1 ③    2 쪽방    3 ③    4 ④    5 ④

6 아빠의 말에 담긴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 ②

1 '나'는 고모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나'를 찾으러 나온 연서와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 가기로 결심한다.

2 '나'는 처음에 아빠가 살고 있는 '쪽방'을 보고 기가 막혔지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아빠의 당당하고 희망적인 태도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3 서울에 다녀오기 전 '나'는 사촌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할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끼고(ㄷ),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가족을 보러 오지 않는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한다(ㄱ, ㄴ). 하지만 서울에 다녀온 후에는 자신을 아끼는 할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고(ㄹ), 서울의 쪽방에서 힘들게 지내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희망을 품게 된다(ㅁ).

4 '나'는 아빠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보며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이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아빠의 당당한 모습은 드러나지만, 빛나는 자존감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아빠의 희망과 용기를 보고 '나'는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 '나'의 응원 때문에 아빠가 용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 ③ 아빠가 서울에서 혼자 머물며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가족에게 소외된 것은 아니다.
  - ⑤ 아빠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가족의 희생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글은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의 속마음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의미를 짐작할 뿐, 숨은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6 '나'는 아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의미를 짐작할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빠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는 아빠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가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고, 오래된 밑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을 들킬까 봐 곤란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가 아빠의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속마음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와 달리 [A]는 말하는 이가 작품 밖에 존재하며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사건 등을 모두 알고 있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내용 확인 문제** 072쪽

1 ④    2 향기

1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물고기가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시에서 대상을 향한 존경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물고기의 관점에서 볼 때 비린내는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이다.

**활동 응용 문제** 073쪽

1 자기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함부로 벌는 말이기 때문이다.    2 ⑤

1 물고기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않으며,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뱀는 말은 언어폭력임을 말하고 있다. 즉 자기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판단하여 뱀는 말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 [A]의 말하는 이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이마에 흠이 났을 때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소단원 마무리** 077쪽

1 (1) O (2) O (3) X (4) X    2 ⑤    3 ②    4 ⑤  
 5 ③    6 (1) X (2) O (3) X

1 (1)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이거나 주체를 말한다.  
 (2) 문학 작품에서 보는 이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3) 말하는 이나 보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 등이 달라진다.  
 (4) 시점은 소설에서 말하는 이나 보는 이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뜻한다.

2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이다.

3 이 글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 '나(한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4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와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빠가 그리워져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간다. '나'가 쪽방에서 아빠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 등으로 보아 아빠와 관계가 서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중학교 1학년인 사촌 동생 성호보다 한 살 많다고 하였으므로 중학교 2학년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는 여기저기 아픈 할머니가 악착같이 농사 짓는 것을 걱정하고, 버스에서 잠이 든 연서가 다칠까 봐 연서의 의자에 바짝 붙어 서 있을 만큼 연서를 아끼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다.  
 ④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서울로 돈을 벌러 가고, '나'는 할머니, 연서와 함께 영천에서 살고 있다.

5 '나'는 쪽방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희망을 품게 된다.

6 (1) 이 글은 아빠를 굳게 믿고 사랑하는 '나'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이 글은 말하는 이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속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의 주제를 강조한다.

(3) 이 글은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여운을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해력 키우기** 079-081쪽

**|1단계|** 1 기어코    2 재질    3 전의    4 경건하다  
 5 제치다    6 성마르다    7 비애    8 부산  
 9 사정    10 웅기종기    11 살래살래    12 부치다  
 13 기함    14 우적우적    15 관점

**|2단계|** 1 객지    2 알곡    3 일동    4 양식  
 5 주체    6 쪽방    7 평상    8 범거지  
 9 잔걸음    10 전지적    11 새옹지마  
 12 새털구름    13 입성하다    14 지질하다

**|3단계|** 1 불통하게    2 응골지계    3 연신  
 4 채근    5 정교하게    6 ㉠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7 ㉡ 두 선수의 실력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8 ㉢ 우리 팀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마치 개 선장군처럼 학교로 돌아왔다.    9 ㉣ 그녀는 창가에 오도카니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10 ㉤ 떼를 쓰는 아이를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1단계|**  
 1 **오답 풀이** 불현듯: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2 **오답 풀이** 특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3 **오답 풀이** 열불: 매우 흥분하거나 화가 난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오답 풀이** 대견하다: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5 **오답 풀이** 메꽃다: '매어꽃다'의 준말. 어개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리꽃다.

- 6 **오답 풀이** 날이 서다: 성격이나 표현, 판단력 등이 날카롭다.
- 7 **오답 풀이** 비장: 남이 모르게 감추어 두거나 소중히 간직함.
- 8 **오답 풀이** 눈살: 두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
- 9 **오답 풀이** 타박: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
- 10 **오답 풀이**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젓게 지내는 모양.
- 11 **오답 풀이** 속속들이: 깊은 속까지 샅샅이.
- 12 **오답 풀이** 붙이다: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 13 **오답 풀이** 경탄: 몹시 놀라며 감탄함.
- 14 **오답 풀이**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 15 **오답 풀이** 초점: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사물의 중심 부분.

### 소단원 평가

082-087쪽

- 01 ⑤    02 ②    03 ②    04 사촌 성호와 비교하며 자신을 타박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 05 ④    06 ①    07 ①    08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약삭같이 농사를 지으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할머니를 걱정한다.    09 ②    10 ④    11 ③    12 ⑤
-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③
- 18 ④    19 각각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이다.

01 '교실 → 동대구역 → 집'과 같이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심리를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② 개학 후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 과거 KTX를 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달렸던 일, 그리고 그날 아침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눹허 놓고 주먹부터 먹어야 한다.', '주먹맛을 보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다.' 등의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밝히지 않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02 (라)에서 할머니의 말을 통해 고모가 평소 '나'를 아끼고 챙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모가 나를 엄하게 대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새옹지마'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는 고모네 집에 가기 싫어 짜증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KTX를 타게 되는 스펙터클한 날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04 '나'는 고모네 아기를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얼굴'이 떠올라 신경이 날카로워진 와중에, 할머니가 사촌 성호와 비교하며 자신을 타박하자 열을 받는다. 결국 '나'는 할머니의 타박을 듣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신을 타박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임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5 할머니가 기말고사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사촌 성호를 칭찬하자, 연서는 오빠도 잘하는 것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빠가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06 ㉠ '작은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촌 동생을 말하는 것으로, 할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녀를 보기 위해 '나'와 연서를 데리고 고모네 집을 방문한 것이다. 하지만 '나'가 서둘러 고모네 집을 나가는 것은 할머니가 사촌 성호와 자신을 비교하며 타박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이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촌 동생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촌 동생을 보다가 '생각하면 안 되는 얼굴'을 떠올리고,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 핸드폰 보는 척을 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러한 '나'의 사정도 모르면서, 평소에도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며 '나'를 타박한다.  
 ③ 집을 나서는 '나'에게 용돈을 챙겨 주는 모습에서 '나'를 생각하는 고모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④ '나'를 생각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주는 모습에서 '나'를 신경 써서 챙겨 주는 고모의 자상함을 알 수 있다.  
 ⑤ 할머니의 말을 통해 '나'의 아빠가 객지에서 생활하며 할머니에게 '나'와 동생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가)에서 아빠는 지난 설날에 왔다 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전화로 늘 바쁘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며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08 '나'는 아빠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 줘도 불구하고 약삭같이 농사를 지으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할머니를 떠올리고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를 통해 '나'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저기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가 할머니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9 [A]에서 '나'는 혼자 서울에 가는 '나'를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주소도 있고 핸드폰 보면 찾아가는 법이 다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혼자서도 아빠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과장된 목소리로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10** 아빠는 보증금도 없고 월세가 낮은 데다가 이웃끼리 서로 일 자리도 알아봐 주고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쪽방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골집보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1** '나'는 방을 보면 실망할 것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가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고 오래된 밑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을 들길까 봐 곤란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의 입장에서 아빠의 의도나 속마음을 추측한 것으로, '나'가 아빠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12** 아빠를 걱정하는 '나'에게 아빠는 중학교 2학년인 '나'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상황을 꽃이나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빠 역시 지금은 힘이 들지만, 결국 서울에 적응하여 잘 살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말하며 '나'에게 가르침보다는 든든함과 안도감을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아빠는 쪽방에서 힘겹게 살면서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고, 힘든 서울살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빠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ㄱ),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단함을 견디는(ㄷ)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4** 빨리 집에 오라는 '나'의 말에 아빠는 돈 벌어서 근사한 트랙터를 타고 나타나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즉 '나'는 이러한 아빠의 모습을 응원하는 것이지, 아빠가 트랙터를 사 오기를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트랙터를 사는 것은 '나'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니다.

**15** '우리 아빠의 멋짐을 확인한 관찮은 여행을 했어요.'와 같이 아빠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독자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마음속으로 떠올릴 뿐 선생님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⑤ 비유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으며, 아빠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한 것이 아니다.

**16** 아빠가 새 트랙터를 사 가지고 돌아와서 동네 논밭을 싹 갈아주고 벼들을 추수할 때, 아빠 옆에 높이 앉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놀이공원에 다녀온 기훈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17** 이 시는 물고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개성적인 발상을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주제를 제시 있게 표현하고 있다.

**18** '마세요'와 같은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특정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후회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19** 물고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비린내'의 의미는 3~4연에 잘 드러난다. 물고기에게 비린내는 각각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향기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향기를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대단원 평가** 096~103쪽

**01** ④    **02** ③    **03** 첫사랑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을 경제 원리로 설명한다.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8** ①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아빠가 왜 그렇게 바쁘고 미안한지 궁금하고, 아빠가 보고 싶기 때문이다.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논밭과 트랙터를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서 고향집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9** ⑤

**20** ③    **21** ①    **22** ⑤    **23** 가족을 사랑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성격이다.    **24** ④    **25** ④

**01** 자신의 독서 상황과 수준, 읽기 목적 등에 맞는 글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읽을 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02** (가)에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고 첫사랑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03** 서아가 글을 읽기 전 살펴본 책의 제목과 표지를 통해 이 글이 경제 지식을 문학 작품과 엮은 글임을 알 수 있고,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첫사랑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을 경제 원리로 설명할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첫사랑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을 경제 원리로 설명하고 있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4**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상황이므로, '어떤 재화'는 식당에서 소비하는 대상, 즉 '음식'에 대응되고 '소비'는 '먹는 것'에 대응된다.

**오답 풀이** ①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표시하면서 글을 읽으면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사랑'은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단어이므로, 이에 표시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②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기 전 질문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③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것은 글을 읽는 중의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05** (가), (나)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을 여러 번 먹으면(①) 횡수가 늘어날수록 만족감, 즉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②) 어느 순간 포만감을 넘어 불쾌감을 느끼면(③) 결국 음식을 그만 먹게 된다(④)고 하였다. 이 때문에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⑤). 따라서 만족감보다 포만감을 더 느끼면서 음식을 그만 먹게 되는 것이 아니다.

**06** (마)에서 글쓴이는 처음보다 강렬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뒤에 느끼는 감정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였다.

**07** 글을 읽은 후의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는 중심 내용 요약하기, 주제 파악하기,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 정리하기,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 등이 있다. 따라서 첫사랑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이 글을 읽은 후의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는 모두 이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08** 이 글의 말하는 이는 '나'로, 자신의 경험과 이에 대한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건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09** (다)에서 '나'와 달리 고모네 집에 갈 준비를 이미 마치고 할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말라며 '나'를 나무라는 연서의 모습을 통해 연서의 어른스러운 면모가 드러난다. 그리고 (라)에서 버스에서 잠이 든 연서가 다칠까 봐 연서의 의자에 바짝 붙어 선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자상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10** 고모네 집에 가자고 아침부터 할머니가 '나'를 깨우자, '나'는 반항적인 태도로 이불을 뒤집어쓴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나서고, 버스에서 연서는 할머니 뒤에 앉고 '나'는 맨 뒷자리에 앉는다(㉡). 고모네 집에 가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사촌 동생을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얼굴'이 떠올라 핸드폰에 코를 박는다(㉢). 이후 나는 KTX를 타고 서울에 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달리고(㉣), 교실에서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몰래 생라면을 먹으려다가 선생님에게 걸려 손을 멈추고 허리를 세운다(㉤).

**11** (나)에서 할머니는 사춘기 소년인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며 고모와 연서 앞에서 '나'를 타박하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나'의 태도에 상처받을 만큼 여리고 섬세한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할머니의 말을 통해 '나'의 아빠는 객지에서 돈을 벌면서 '나'와 연서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할머니에게 보내 주고 있고(㉠), '나'와 연서는 아빠와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다)에서 엄마가 뒷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연서의 말을 통해 엄마가 돌아가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라)에서 아빠는 지난 설날에 왔다 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13** '나'는 전화를 할 때마다 아빠가 늘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까닭이 궁금하기도 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한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해서 서울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빠가 늘 바쁘고 미안한 까닭이 궁금하고 아빠가 보고 싶기 때문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4** (가)에서 '나'는 서울에 가서 아빠하고 살라는 할머니의 말에 그렇게 하다가 연서를 잘 돌봐 줘야 한다는 돌아가신 엄마의 부탁을 떠올리는 생각이 복잡해진다. (나)에서는 서울에 도착하여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뜨고, (다)에서는 좁고 창문 하나 없는 아빠의 방을 본 후 놀란다. 마지막으로 (라)에서 '나'는 아빠의 단출한 살림을 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고, 뭘 해 먹고 사는 지 생각하면서 어이없어 한다.

**15** '나'는 할머니에게 아빠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몰래 서울에 가기로 한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여 자신을 말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할머니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16** '나'는 마치 소인국에 떨어진 걸리버가 된 기분이라며,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로 작고 창문 하나 없는 아빠의 방을 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17** 아빠에게 오기 전에 '나'는 아빠가 왜 전화할 때마다 늘 바쁘다, 미안하다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아빠가 자신과 연서를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아빠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또한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돈 벌어서 논밭과 트랙터를 사서 돌아갈 것이라며 자신을 믿어 달라고 말하는 아빠를 이해하게 된다.

**18** 아빠는 '나'가 고향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여러 번 말하자 논밭도 사고, 트랙터도 살 만큼 돈을 벌어서 품 나게 돌아갈 것이라는 목표를 솔직하게 말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밭과 트랙터를 사서 돌아갈 것이라는 목표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9** '나'는 근사한 트랙터를 타고 나타날 테니 기다리라는 아빠의 당당하고 희망찬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도 한결 밝아짐을 느낀다. ⊕은 이러한 '나'의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실제로 날이 밝아 방 안에 햇빛이 드리운 것은 아니다.

**20** 이 글은 사춘기 소년인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오답 풀이** ① 표현에 서툰 남학생의 목소리로 가족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나'가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은 맞지만, '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중학생 소년인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그려 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통해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 불공평한 사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⑤ 시골에 사는 소년이 서울에 다녀오는 과정을 담아낸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시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21** 아빠는 아들이 찾아왔지만 서울 구경도 시켜 주지 못하고, 꼭두새벽에 잠든 아들을 두고 일을 하러 가는 미안한 마음을 잠든 '나'의 손을 한 번 꼭 잡아 주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22**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사는 아빠를 만나러 다녀오면서 겪었던 일과, 이를 통해 깨달은 가족의 의미와 희망의 마음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울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온 것을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나'가 희망을 갖게 된 것이지 힘든 삶을 버티기 위한 비밀을 간직하게 된 것은 아니다.

② '쪽방에서의 소중한 깨달음'은 표제로 어울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라는 부제는 이 소설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아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온 것은 가족이라는 희망을 깨달게 된 과정이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나'의 가족이 가까이 있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의 사랑을 잊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23** (라)에서 '나'는 할머니에게 통명스럽게 말하지만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가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아빠와 살지 왜 왔냐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와 할머니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와 할머니의 공통적인 성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4** '나'가 경건한 마음으로 '생라면'을 먹는 것은 희망과 용기,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지닌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이지,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2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물고기이로, 물고기의 관점에서 '비린내'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향기이므로 무조건 다 비린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04~105쪽

**01**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    **02** 무한 리필 식당에서 사람들이 접시에 담은 음식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까닭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03**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았다.    **04** 쪽방은 월세가 낮아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기 좋은 곳으로, 아빠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05** '나'는 아빠가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고, 오래된 밑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을 들켜 봐 곤란해한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 아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과 아빠의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06**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이다.

**01** (바)에서 우리의 감정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점차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글쓴이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에 적용해서 설명하려고 (가)에서 첫사랑을 다룬 소설 「소나기」를 언급한 것이다.

#### 평가 기준

- Ⓢ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서술하였다.
- Ⓣ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02** (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시에 담은 음식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소개하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 뒤에서는 무한 리필 식당에서 사람들이 접시에 담은 음식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까닭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 (마)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 (마)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마)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3** <보기>는 글에 제시된 사례 외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또 다른 예를 알아보고 있다. 즉 글을 읽은 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본 것이다.

평가 기준

- 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았다는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②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았다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③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았다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4**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데로 이사를 가라는 '나'의 말에 아빠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낮으며, 이웃끼리 서로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교통이 편한 쪽방에서 계속 살겠다고 대답한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빠가 사는 쪽방은 월세가 낮아 '나'와 연서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 주기 좋은 곳으로, 아빠의 책임감과 강한 생활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① 아빠가 쪽방에 사는 까닭과 쪽방의 상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② 아빠가 쪽방에 사는 까닭과 쪽방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③ 아빠가 쪽방에 사는 까닭과 쪽방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5** ㉠을 들은 '나'는 아빠가 엄마의 당부를 지키지 않고 지내는 것을 들킬까 봐 방을 보여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나'는 초라한 방을 보고 '나'가 실망할까 봐 걱정하는 아빠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기준

- ① ㉠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아빠의 속마음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② ㉠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아빠의 속마음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③ ㉠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아빠의 속마음을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에서 생라면은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했고, <보기>에서 '나'가 생라면을 씹는 것은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나'가 생라면을 먹는 것은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①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임을 4어절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②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임을 썼으나, 4어절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③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임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1** 이 글은 첫사랑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과 관련지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글쓴이가 인간의 감정은 강렬함과 상관없이 모두 소중하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해야 할 점검 및 조정 활동에 해당한다. 이 글은 '첫사랑'의 감정에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한 글이므로, 글을 읽기 전에 첫사랑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한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 ②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표시하면서 글을 읽으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므로, 이에 표시해 두는 것은 적절한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 ④ 글을 읽은 후에는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야 한다. 글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글을 읽은 후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 ⑤ 글을 읽은 후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첫사랑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글을 읽은 후의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02** <보기>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가치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03** '나'는 당당하고 희망찬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빠를 이해하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아빠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말한다. 이는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일 뿐,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아빠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또한 아빠는 돈을 벌어 근사한 트랙터를 타고 나타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으므로, 아빠가 '나'와 함께 고향에 가고 싶어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04**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작품 밖에 존재하며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사건 등을 모두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를 바꾸면 아빠의 속마음, 아빠의 행동이나 말에 담긴 숨은 의도와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빠의 고단한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자장으로서의 책임감, 삶의 고뇌 등이 좀 더 강조된다.

오답 풀이

- ① 아빠의 속마음과 의도가 더 잘 드러날 뿐, 아빠가 처한 상황이 더 사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보기>에서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돌덩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빠가 느끼는 고달픔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이지 아빠와 '나'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④ <보기>의 말하는 이는 작품 밖에 존재하므로, 아빠가 아니다.
- ⑤ <보기>는 작품 밖의 말하는 이가 아빠의 속마음과 의도를 모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빠의 속마음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므로, 아빠의 속마음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12~113쪽

1 (1) X (2) O    2 (1) 이, 히, 리, 기 (2) 주어    3 썩이  
사냥꾼에게 잡혔다(잡아졌다).    4 ⑤    5 (1) 이중 피  
동 (2) 직접 인용 (3) 간접, 직접    6 선재는 나에게 "같이  
농구를 하자."라고 제안했다.    7 ④

1 (1)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능동 표현은 행위를 한 주체가 주어인 문장으로, 행위를 한 주체가 강조된다. 반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으로,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2 (1)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여 만들 수 있다.

(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로 바뀌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로 바뀐다.

3 능동 표현인 '사냥꾼이 썩을 잡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고, 목적어는 주어로 바꾼다. 그리고 서술어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썩이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꾼다. 또는 서술어에 '-아지다'를 붙여 '썩이 사냥꾼에게 잡아졌다.'로 바꿀 수도 있다.

4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감추면, 전달하는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능동 표현이다.

②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는 표현은 능동 표현이다.

③ 피동 표현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④ 피동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전달하는 정보나 사실이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5 (1) 피동 접미사 두 개를 겹쳐 쓰거나 피동 접미사에 다시 '-어지다' 등을 더하는 경우를 이중 피동이라고 한다. 이처럼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된 이중 피동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쓸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 하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 한다.

(3)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인용은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

6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을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 조사 '고'를 '라고'로 바꾼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선재는 나에게 "같이 농구를 하자."라고 제안했다.'로 쓸 수 있다.

7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전달하고 싶은 뜻에 맞추어 자료가 정보를 변형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활동 응용 문제

116~125쪽

1 ④    2 (1) 매듭이 민수에 의해(민수에게) 풀렸다. (2) 매듭이 민수에 의해(민수에게) 풀어졌다.    3 ①    4 ②  
5 ④    6 창문을 깨뜨린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7 ①    8 잊혀지지  
→ 잊히지(잊어지지), 피동 접미사 '-히-'에 '-어지다'를 더해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③    15 ④

1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형용사가 아닌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일 수 있다.

2 (1)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여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주어를 부사어(에게, 에, 에 의해)로, 목적어는 주어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서술어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인다. 따라서 '매듭이 민수에 의해(민수에게) 풀렸다.'가 된다.

(2) '-어지다'를 사용하여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는 주어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서술어인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인다. 따라서 '매듭이 민수에 의해(민수에게) 풀어졌다.'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기〉를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바꾸었다.	<input type="checkbox"/>
〈보기〉를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바꾸었다.	<input type="checkbox"/>

**3** ‘안되다’는 ‘근심이나 병 등으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는 뜻이다. 즉 ‘얼굴이 안되다.’는 안색이 좋지 않거나 힘들어 보인다는 의미로,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명사 ‘연기에’ ‘~되다’를 더해서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③ 명사 ‘해결’에 ‘~되다’를 더해서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④ 명사 ‘변경’에 ‘~되다’를 더해서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⑤ 명사 ‘형성’에 ‘~되다’를 더해서 만든 피동 표현이다.

**4** ‘하늘이 구름에 덮혔다.’는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된 피동 표현으로, 주어인 ‘하늘’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다.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가 되므로, 행위를 한 주체는 ‘구름’이다.

**5** ㉠은 피동 표현이고, ㉡은 능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동의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므로, ㉠과 ㉡이 모두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능동 표현을 행위를 한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과 ㉡에서 행위를 당한 대상은 손님이 아니라 식탁이다.

③ ㉠과 ㉡은 모두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종업원에게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6** 제시된 문장은 ‘깨다’에 ‘-아지다/~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즉 학생이 이러한 피동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자신이 한 일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기 위험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 ㉡과 같은 뉴스 보도나 일기 예보에서 ‘판단되다’, ‘보이다’, ‘예상되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숨기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내고(ㄴ), 전달하는 정보에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ㄷ)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8** ‘어제 본 영화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에서 서술어 ‘잊혀지지’는 ‘잊-+-히-+-어지다’로 피동 접미사 ‘-히-’에 ‘-어지다’를 더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므로, ‘어제 본 영화의 장면이 잊히지 않아.’ 또는 ‘어제 본 영화의 장면이 잊어지지 않아.’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잊혀지지’를 찾아 ‘잊히지’ 또는 ‘잊어지지’로 고쳤다.	<input type="checkbox"/>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9**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쓸 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문장의 종결 표현이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끌어다 쓴다.

**10**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11** ㉠은 직접 인용이고, ㉡은 간접 인용이다. ㉠에는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라고’가 쓰였으나 ㉡에는 조사 ‘고’가 쓰였다. ㉡의 ‘앞으라고’는 어간 ‘앞-’에 명령형 종결 어미 ‘-으라’가 붙은 ‘앞으라’에 조사 ‘고’가 붙은 형태이다.

**오답 풀이** ② ㉠에서는 인용된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있으나, ㉡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에서는 ‘앞으세요’와 같이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으나, ㉡에서는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서는 ‘-으세요’라는 인용된 문장의 종결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에서는 ‘-으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12** 직접 인용은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나 말투 등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13** ㉠은 전문가인 연구 팀의 설명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피동 표현 ‘밝혀졌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은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라는 출처를 밝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 ㉡은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수면만으로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4**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는 능동 표현과 달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즉 기사문에서 피동 표현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를 신중하게 드러내고 객관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쓰인다.

**15**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잘못 인용하면 원작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할 때에는 행위의 주체나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지만,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표현의 의도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주장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동 응용 문제**

126~127쪽

- 1 ④      2 조사 '고'를 조사 '라고'로 고쳐 쓴다.

**1** ㉠은 동사의 어간 '듣-'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고, ㉡은 동사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므로써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고 있고, ㉡은 행위의 주체를 숨김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고 신중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다. ㉢ '보여'에서 '여'는 피동 접미사 '-이-'와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에 사용된 피동 접미사는 '-여-'가 아니라 '-이-'이다.

**2**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큰따옴표를 넣고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인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였으므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고쳐야 함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소단원 마무리**

131쪽

- 1 ②      2 (1) O (2) X (3) X (4) O      3 (1) X (2) O  
 (3) O      4 ④      5 ⑤      6 (1) X (2) O (3) O

**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를 당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부각하고 싶지 않은 경우나 행위의 주체를 밝힐 수 없을 때,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 2** (1) 피동 표현은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만들 수 있다.  
 (2) 동사가 아니라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에 '-되다'를 더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3)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부사어가 아니라, 능동 표현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야 한다.  
 (4)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서술어인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여 만들 수 있다.

- 3** (1)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표현이다.  
 (2)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는 표현이다.  
 (3)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4**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므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장의 종결 표현이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다만, ㉠을 ㉡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맞게 바꾸어야 할 지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5**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쓸 때,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말투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을 사용할 때보다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인용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격식을 갖추어 내용을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 (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원작자의 본래 의도보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두드러지게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이 활용된 자료를 읽을 때에는 표현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나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정보의 원천을 따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단계 | 1 화자    2 주의    3 초과되다  
 4 복돋우다    5 함량    6 빈도    7 전가하다  
 8 맥락    9 인상    10 섭취    11 망설이다  
 12 피동    13 초점    14 현장감    15 의도

- 2단계 | 1 대폭    2 보도    3 알람    4 종결  
 5 지시    6 호칭    7 부작용    8 비판적  
 9 오누이    10 원작자    11 접미사    12 부각하다  
 13 유지하다    14 유통되다

- 3단계 | 1 쭈뼛거리며    2 왜곡하지    3 복구하는  
 4 신중하게    5 밝혀야    6 예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    7 예 손 씻기는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8 예 비타민은 권장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9 예 이 조각상은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진다.    10 예 구단은 팀을 대표하는 선수에게 다년 계약을 제안하였다.

1단계

- 1 오답 풀이 청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  
 2 오답 풀이 주체: 문장 내에서 술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술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3 오답 풀이 과도하다: 정도에 지나치다.  
 4 오답 풀이 복구하다: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  
 5 오답 풀이 권장량: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섭취하기를 권하는 양.  
 6 오답 풀이 과다: 너무 많음.  
 7 오답 풀이 제안하다: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  
 8 오답 풀이 시중: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개된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오답 풀이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씬.  
 10 오답 풀이 행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11 오답 풀이 신중하다: 매우 조심스럽다.  
 12 오답 풀이 능동: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13 오답 풀이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14 오답 풀이 생동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15 오답 풀이 효과: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은 식탁을 잘 안 닦은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은 식탁을 잘 안 닦은 종업원의 실수를 부각하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한다.    07 ③  
 08 ⑤    09 ⑤    10 피동 표현 ‘풀려졌다’에 피동 표현 요소 ‘-리-’와 ‘-어지다’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하고 나자, 문제가 슬슬 풀렸다(풀어졌다).’로 고쳐야 한다.    11 ②  
 12 ①    13 ⑤    14 오늘, 하자    15 ③  
 16 (1)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다. (2) 원래 문장(직접 인용)보다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17 ⑤    18 ③    19 ①    20 ⑤    21 ④

01 ‘내가 괴물에게 잡혔어.’는 주어인 ‘나’가 행위의 주체인 ‘괴물’에게 잡히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으로, 행위를 당하는 ‘나’에 초점을 맞춘 문장이다.

02 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주어인 ‘도둑’이 다른 주체인 ‘경찰’에 의해 잡히는 행위를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고, ‘잡혔다’는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르. ‘몸이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주어인 ‘몸’이 다른 주체인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행위를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고, ‘흔들리다’는 ‘흔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가.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는 주어인 ‘엄마’가 자기 힘으로 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다. ‘나는 매일 아침 머리를 말린다.’는 주어인 ‘나’가 자기 힘으로 머리를 말리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03 능동 표현의 주어 ‘호랑이가’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 ‘호랑이에게’가 되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 ‘오누이를’은 피동 표현의 주어 ‘오누이가’가 된다. 또한 능동 표현인 ‘쫓았다’는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사 ‘쫓기었다’가 된다. 이때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일 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04 가의 ‘깨졌다’는 ‘깨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고, 르의 ‘썩었다’는 ‘썩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으로, 모두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 나.의 ‘물렸다’는 ‘물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고, 다.의 ‘안겼다’는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으로, 모두 동사에 피동 접미사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모의 ‘복구되었다’는 ‘복구’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으로, 명사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

**05** ㉠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피동 표현으로, 이때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윤서'는 주어에 위치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은 행위의 주체인 '우리'를 주어로 하는 능동 표현이고, ㉡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윤서'를 주어로 하는 피동 표현이다.  
 ③ ㉠은 직접 뺀 행위를 한 주체인 '우리'를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여,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의 '뺐혔어'는 '뺐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6** ㉠에서 손님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탁을 잘 안 닦는 행위를 한 주체인 종업원을 숨기고 행위의 대상인 식탁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에서 손님은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탁을 잘 안 닦는 행위를 한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시된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와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7** ㉠은 피동 표현이고, ㉡은 능동 표현이다. ㉠은 행위를 한 학생이 창문을 깨 행위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⑤ ㉠은 창문을 깨 행위를 한 주체보다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한 표현이다.  
 ② ㉡은 ㉠과 달리 창문을 깨 행위를 한 주체가 자신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 뉴스 보도와 일기 예보에서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09** ⑤에서 '쓰여지고'는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쓰이다'라는 피동 표현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쓰이고' 또는 '써지고'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구겨졌다'는 '구기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② '풀렸다'는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③ '증명되었다'는 명사 '증명' 뒤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④ '달히지'는 '달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지'는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다.

**10** 제시된 문장에서 '풀려졌다'는 능동 표현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합쳐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 표현은 피동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풀렸다' 또는 '풀어졌다'로 고쳐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동 표현 '풀려졌다'를 찾아 피동 표현 요소인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를 밝히고 바르게 고쳐 썼다.	<input type="checkbox"/>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1**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口)으로,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인다(ㄱ). 반면,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ㄷ) 그 뒤에 조사 '라고'를 쓴다(ㄴ).

**12**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조사,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인용하는 부분을 문장의 앞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직접 인용의 "내일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시간 표현을 현재의 시점으로 바꾸어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용하는 부분의 종결 어미가 '-아'에서 '-라'로 바뀌며 그 뒤에 조사 '고'가 붙어 '어머니는 어제 나에게 오늘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 오라고 말했다.'가 된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조사 '고' 대신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선재는 나에게 "같이 농구를 하자."라고 제안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민호가 어제 내 생일이 오늘이냐고 물었다.'의 경우, 현재 '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민호가 어제 "네 생일이 내일이니?"라고 물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식당 주인은 나에게 "그쪽에 앉으세요."라고 말했다.'의 경우, 식당 주인이 말한 '그쪽'은 '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식당 주인은 나에게 이쪽에 앉으라고 말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간접 인용은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을 실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어제 아버지께 "저도 내일 등산을 따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된 문장 속 '저'라는 높임 표현을 '자기'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내일'은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는 어제 아버지께 자기도 오늘 등산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문장의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인용된 부분인 “내일 방과 후에 다같이 환경 미화를 합시다.”에서 ‘내일’은 어제의 시점에서 ‘내일’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용된 부분의 종결 어미 ‘-하시다’는 ‘-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간 표현을 ‘오늘’로, 종결 표현을 ‘-자’로 바르게 바꾸었다.	<input type="checkbox"/>

**15** ㉠은 직접 인용으로, 할머니의 말을 내용과 형식 모두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나’를 부르는 호칭인 ‘학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할머니의 말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④ ㉡은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 통해 할머니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직접 인용으로,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므로 내용을 ‘나’의 관점에서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을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16**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인용에 쓰인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자기’로 바꾸고, 인용한 부분의 종결 표현을 ‘-냐’로 바꾸어야 한다. 이처럼 간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에 비해 현장감과 생동감은 부족하지만,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르게 바꾸어 쓰고, 간접 인용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7** 제시된 글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주변의 편의점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였다. 이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많이 마신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②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은 성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④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수면만으로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면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 ‘제기되었다’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 주장을 제기하는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글의 맥락상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19** ㉠은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에 실린 연구 팀의 연구 결과를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쓴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즉 ㉠은 변형 없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은 간접 인용이다. ③은 전문가인 연구 팀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연구 팀의 말을 내용과 형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면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연구 팀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글쓴이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매끄럽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은 간접 인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원래의 기사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나, 인용한 내용에서는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작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기사를 요약하여 인용할 때 자신의 의견을 함께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용된 내용은 기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잘못을 하였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③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섭취하면 슬픔과 절망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은 연구 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 팀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인용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긴 것은 맞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2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02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42-143쪽

- 1 (1) O (2) X (3) O    2 (1) 재생 (2) 현혈 (3) 참여  
 3 처음만 힘들지    4 (1) O (2) X    5 (1) 수동적  
 (2) 다양한 삶    6 ④

1 (1) 재현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2)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현되므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현하느냐에 따라 매체를 통해 나타내는 현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통해 재현되는 현실이 실제 현실을 똑같이 담아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매체 자료를 통해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면 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생길 수 있다. 또는 매체 자료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내용을 담아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2 (1) 현혈에 관한 인쇄 광고에서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재생'이라는 문구를 반복·강조하여 나타냈다.

(2) 현혈에 관한 영상 광고에서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과 함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현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현혈에 관한 인쇄 광고와 영상 광고에서는 이미지나 문구 등을 활용하여 현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처음만 힘들지」에서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행동을 통해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과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4 (1) 금연에 관한 홍보물에서 남학생이 농구공을 들고 있고, 자신을 '얼리어답터'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학생이 화장 도구를 들고서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내용의 홍보물에는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1) 상처 치료제 광고는 어린이를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2)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서는 연장자 모델을 '나이 들'을 부각하는 역할이 아닌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역할로 표현하였다.

6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형태로 대상을 재현하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매체 자료에서 특정 이미지나 역할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면서 고정 관념이 형성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② 매체 자료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⑤ 매체 자료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므로, 시대가 변하면서 같은 대상이 다르게 재현되기도 한다.

### 활동 응용 문제

146-153쪽

- 1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 ④    3 ②    4 ②    5 ③    6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    7 ③    8 ①  
 9 어린이를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1 노란 장화를 찍은 두 장의 사진 중 하나는 신나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반면, 다른 하나는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든다. 이처럼 비오는 날의 노란색 장화를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까닭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었기 때문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한 이미지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재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나)는 심장 박동 그래프,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을 반복하여 제시하였으므로, (가)와 (나) 모두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 (가)와 (나)는 모두 현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배제하였다(ㄱ). (가)와 달리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현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ㄷ), (나)와 달리 (가)는 혈액 백의 이미지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여 현혈의 가치를 표현하였다(ㄹ).

오답 풀이 나. (가)와 (나) 모두 현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를 배제하였다.

ㄹ. (가)와 (나) 모두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선택하였다.

4 이 광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 광고이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는 상업 광고이다.

5 장면 ㉓에서 경비원이 아니라 택배를 받는 사람이 택배 배달원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받은 배달원이 장면 ㉔에서 자신도 경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6 이 광고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상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행동을 통해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과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마음을 전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이 홍보물에서 남학생은 농구공을 들고 자신을 '얼리어답터'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학생은 화장 도구를 들고 자신이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홍보물에는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8 홍보물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등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물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고정 관념에 따라서만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기존의 광고에서 어린이의 모습을 다쳐서 주저앉아 우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2021년의 상처 치료제 광고는 어린이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를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였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활동 응용 문제**

154~155쪽

- 1 ④      2 ②      3 ①

1 (가)에서는 '호흡기 질환 20% 감소', '설사 질환 30% 감소' 등 질병 예방 효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항균 효과 90.9퍼센트'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고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손을 비누로 비벼요, 30초 이상'을 줄임말 '비비삼'으로 표현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나)에는 줄임말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서 '손', '비', '30' 등 중요한 글자를 굵게 강조하여 제작 의도를 잘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90.9퍼센트', '풍부한', '촉촉한' 등 중요한 글자를 굵게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나)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거품형 손 세정제 제품을 판매하려는 상업 광고이지만, (가)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안내하는 공익 광고이다.

⑤ (가)는 홍보물 하단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그림과 함께 6단계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지만, (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지 않았다.

2 매체 자료는 사진, 쟁점, 인물 등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문구나 이미지 등을 선택하거나 배제한다. 그러므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현된 매체 자료의 내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재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이 트랙터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공익 광고는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 예에 해당한다.

**소단원 마무리**

159쪽

- 1 ①      2 (1) O (2) O (3) X      3 ②      4 (1) O  
(2) O (3) X (4) O      5 ②      6 (1) X (2) O (3) O

1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현된 것이다.

2 (1)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미지나 문구 등을 활용한다.

(2)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한다.

(3)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기도 하고, 형성되기도 하며, 강화되기도 한다. 또한 매체 자료를 통해 기존의 고정 관념이 해소되기도 한다.

3 현행 인쇄 광고에서는 '녹음·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등으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이라는 의미의 '재생'과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의 '재생'을 모두 활용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쇄 광고뿐 아니라 영상 광고도 현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실감 나게 그려 낸 것은 인쇄 광고가 아니라 영상 광고이다.

④ 혈액 백을 영상 재생 아이콘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시한 것은 영상 광고가 아니라 인쇄 광고이다.

⑤ 영상 광고에서는 이미지뿐 아니라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를 빨간색 글자로 강조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현행에 참여자는 제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1) 『처음만 힘들지』 광고에서 제작자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모두 활용하여 광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2) 『처음만 힘들지』 광고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 뒤,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상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연결 지어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3) 『처음만 힘들지』 광고 속 제작자는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광고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 앞부분에서 반복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4) 『처음만 힘들지』 광고의 제작자는 광고에서 먼저 마음을 전하는 행동을 통해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권유하고 있다.

5 고정 관념이란 마음속에 굳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매체 자료에는 특정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등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매체 자료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고정 관념을 반영하거나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기도 한다.

6 (1) 연장자에게 '나이 들'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고정 관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의류 광고에서 연장자 모델에게 '나이 들'을 부각하는 역할을 맡긴 것은 연령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변화시킨 사례로 볼 수 없다.

(2) 한 상처 치료제 광고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어린이를 등장시킨 것은, 어린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변화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3) 연장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 출연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연장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미숙할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변화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문해력 키우기**

161~163쪽

**1단계** | 1 박동 2 염두 3 기존 4 위급  
5 의도적 6 재현 7 배제하다 8 편견  
9 면모 10 반영되다 11 경쾌하다 12 고정 관  
념 13 비판적 14 가정하다 15 수혈

**2단계** | 1 광고 2 공익 3 관점 4 재생  
5 항균 6 구매욕 7 다양성 8 부작용  
9 세정제 10 제작자 11 호흡기 12 내레이션  
13 키오스크 14 열리어답터

**3단계** | 1 매체 2 추구할 3 연출 4 재구성되  
었다 5 유도하는 6 예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7 예 영화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8 예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9 예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10 예 고정  
화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단계**

1 **오답 풀이** 재생: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오답 풀이**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3 **오답 풀이** 진흥: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

4 **오답 풀이** 쟁점: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5 **오답 풀이** 자극적: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 것.

6 **오답 풀이** 연출: 연극이나 방송극 등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등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7 **오답 풀이** 독려하다: 감독하며 격려하다.

8 **오답 풀이** 추구: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9 **오답 풀이**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10 **오답 풀이** 부각되다: 어떤 사물이 특징지어져 두드러지게 되다.

- 11 **오답 풀이** 멍달다: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좇아서 하다.
- 12 **오답 풀이** 사회상: 사회의 양상이나 실태.
- 13 **오답 풀이** 수동적: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
- 14 **오답 풀이** 기발하다: 유달리 재치가 뛰어나다.
- 15 **오답 풀이** 헌혈: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줌.

### 소단원 평가

164~165쪽

- 01 ③      02 헌혈에 참여하자.      03 ④      04 ⑤
- 05 ④      06 ④      07 ②      08 ③

01 (가)와 (나)는 모두 현실을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매체 자료를 통해 재현되는 현실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02 (가)는 헌혈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문구에 '재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과 함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헌혈에 참여하자.'라는 공통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헌혈에 참여하자는 (가)와 (나)의 공통 주제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3 (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재생'이라는 문구를 통해, (나)에서는 '당신의 헌혈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만 헌혈 백의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② (가)와 (나) 모두 헌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배제하였다.  
 ③ (나)만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선택하였다.  
 ⑤ (가)와 (나) 모두 헌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를 배제하였다.

04 (나)에서 심장 박동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헌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헌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려는 광고의 주제 의식과도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재생'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재생'이라는 단어를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의 의미와 '녹음·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등에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의 의미로 활용하여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헌혈에 참여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5 ⑤는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할머니에게 뒤에 있던 사람이 도움을 드리는 장면(㉒)에서 연결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에서는 도움을 받은 할머니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함께 밝게 웃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㉑에는 이웃이 스마트폰만 하는 학생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밝게 인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㉒에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㉓에는 택배를 전달해 주는 배달원에게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따라서 해당 장면에 택배 배달원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㉕에서는 택배 배달원이 경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06 제시된 광고는 앞부분에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뒷부분에서는 상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구성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면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에 해당하는 장면을 먼저 배치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홍보물에서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08 제시된 기사는 과거에는 고정 관념에 따라 연장자 모델이 주로 '나이 듦'을 부각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이 이용하는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므로, 기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기사를 본 뒤에 매체 자료를 통해 고정 관념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기사는 연령에 따른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기사를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다.  
 ②, ④ 매체 자료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된다. 제시된 기사에서는 소비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삶을 추구하게 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광고에 연장자 모델을 '나이 듦'을 부각하는 역할이 아닌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역할로 등장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기사를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다.  
 ⑤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다. 제시된 기사에서는 광고에 따라 연장자 모델이 다르게 재현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기사를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다.

## 대단원 평가

170~175쪽

- 01 ②    02 ③    03 물고기가 나에게(나에 의해) 잡혔다 (잡아졌다). /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었다.    04 ⑤
- 05 ⑤    06 ②    07 ①    08 ④    09 ③
- 10 ②    11 (1) 지수는 선생님께 자기는 전학을 왔다고 말 씀드렸다. (2) 서연이가 지아에게 “잘 다녀왔어?”라고 물었 다.    12 ③    13 ⑤    14 ②    15 ③
- 16 ④    17 ⑤    18 ④    19 ②    20 ③
- 21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권하 고 있다.    22 ②    23 ①    24 ④    25 ②
- 26 매체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 은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01 ①은 능동 표현, ②는 피동 표현이다(ㄱ). 능동 표현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ㄷ),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ㄴ).

**오답 풀이** ㄷ.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을 바꿀 때 ①의 목적어인 ‘무너진 건물’은 ②의 주어인 ‘무너진 건물’로 바뀐다.

ㄴ. ①의 서술어인 ‘복구하다’는 명사 ‘복구’에 ‘-하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②의 ‘복구되다’는 명사 ‘복구’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2 ‘꺾었다’, ‘흔들렸다’, ‘끓겼다’, ‘꽃혔다’는 모두 동사에 피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③ ‘찢어졌다’는 동사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꺾었다’는 동사 ‘꺾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② ‘흔들렸다’는 동사 ‘흔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④ ‘끓겼다’는 동사 ‘끓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⑤ ‘꽃혔다’는 동사 ‘꽃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3 ‘내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물고기가 나에게(나에 의해) 잡혔다(잡아졌다).’가 된다. 이처럼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가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는 문장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르게 바꾸어 썼다.	<input type="checkbox"/>
능동 표현이 피동 표현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4 ①은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는 능동 표현이고, ②는 행위를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는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①에서는 윤서를 회장으로 뽑은 주체인 ‘우리’를 주어로 하여 강조하고 있고, ②에서는 회장으로 뽑는 행위를 당한 ‘윤서’를 주어로 하여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①과 ②는 모두 ‘윤서가 회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② ②의 주어는 행위를 당한 대상인 ‘윤서’이다. 따라서 ②가 주어를 숨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 것은 피동 표현인 ②에 해당한다.

④ ①과 ②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식당에서 손님이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여기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의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6 ①에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판단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므로써 얻게 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 기업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은 ○○ 기업에서 판단한 결과도 아니다.

07 ① ‘펼쳐져’는 동사 ‘펼치다’에 피동을 만드는 말인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적절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② ‘담겨져’는 동사 ‘담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 ‘담기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③ ‘놓여져’는 동사 ‘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 ‘놓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④ ‘믿겨지지’는 동사 ‘믿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⑤ ‘쓰여진’은 동사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 ‘쓰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08 직접 인용은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이고,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인다. 그러나 ④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는 직접 인용이나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내용만 끌어다 쓰는 간접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인용하는 부분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이 쓰인 문장이다.

⑤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 그 뒤에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이 쓰인 문장이다.

09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므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장의 종결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문장의 종결 표현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서술어가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큰따옴표는 간접 인용이 아닌 직접 인용에서 활용하는 문장 부호이다.

②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를 사용하고, 직접 인용에서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즉 직접 인용에서 조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조사가 달라지는 것이다.

④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시간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하고, 반대로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도 상황과 맥락에 맞게 문장의 시간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⑤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이다.

**10**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가 없�지고 인용하는 부분 뒤의 조사, 종결 표현, 시간 표현 등이 달라진다. 제시된 문장의 경우, 큰따옴표가 없�지고 인용하는 부분의 종결 표현이 '-아'에서 '-다'로 바뀌며 그 뒤에 조사 '고'가 붙는다.

**11** (1)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칭 표현은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고,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자기'로, '왔습니다'를 '왔다'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여 '지수는 선생님께 자기는 전학을 왔다고 말씀드렸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2)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 간접 인용에서의 종결 표현 '-냐'는 보통 의문문에 사용되므로,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 뒤에 조사 '라고'를 붙여 '서연이가 지아에게 "잘 다녀왔어?"'라고 물었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input type="checkbox"/>
(2)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input type="checkbox"/>

**12** 직접 인용에서의 의문문은 간접 인용에서 보통 '-냐'로 바뀌므로, ㉠ '갈까?'는 '가겠느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지호는 어제 나에게 오늘 같이 집에 가겠느냐고 물었다.'가 된다. 그리고 ㉡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언니는 나에게 "그쪽을 한 번 찾아봐."라고 말했다.'가 된다.

**13** <보기 1>은 직접 인용이 쓰였고, <보기 2>는 간접 인용이 쓰였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인물의 고유한 말투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간접 인용이 쓰인 <보기 2>는 직접 인용이 쓰인 <보기 1>보다 현장감과 생동감이 줄어든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분량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할머니의 말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간접 인용이 쓰인 <보기 2>가 아니라 직접 인용이 쓰인 <보기 1>이다.

③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더라도 형식만 달라질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1>에서 <보기 2>로 바꾸었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직접 인용이 쓰인 <보기 1>을 간접 인용이 쓰인 <보기 2>로 바꾸었을 때 형식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 2>에 할머니가 한 말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4** ㉠은 간접 인용, ㉡은 직접 인용이다.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므로, 내용만 끌어다 쓰는 간접 인용에 비해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간접 인용, ㉡은 직접 인용이 사용되었다.

③ ㉠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는 정보의 출처를, ㉡은 '연구 팀'이라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④ 인용하는 부분 뒤에 직접 인용은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⑤ 내용을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인용인 ㉡이다.

**15** ㉢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등을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밝히다'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므로, 이 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밝히다'에서 '-히-'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라,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6**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할 때에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과의 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동일한 대상인 비 오는 날의 노란색 장화를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까닭은 매체 자료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여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노란색 장화를 찍더라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경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진 촬영에 사용한 장비가 다를 수는 있으나, 이는 두 사진이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② 두 장화가 서로 다른 장화일 수는 있으나, 이는 두 사진이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③ 제작자는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찍더라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④ 둘 다 비 오는 날의 노란색 장화를 찍은 사진이라고 했으므로, 사진을 촬영한 날의 날씨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18** (가)는 문구의 색깔을 조정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나)에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해당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19** 현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가)뿐만 아니라 (나)에서도 배제하였다.

**20** 장면 ㉠에 택배를 전달하는 배달원이 등장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는 택배 배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문고리에 걸려 있을 뿐, 택배를 받는 사람과 배달원이 서로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21** 이 광고는 앞부분에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뒷부분에서 상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먼저 시작해 봐요’라는 노랫말과 ‘먼저 마음을 전하면 모두의 하루가 따뜻해질 겁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권유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고에 반영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2** 제시된 홍보물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의 성별은 ‘남성’이고, <보기>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제시된 홍보물은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제시된 홍보물이 기존의 고정 관념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보기>는 새로운 고정 관념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④ 제시된 홍보물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만 문제 상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보기>가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된 홍보물이나 <보기>와 같은 매체 자료는 사회상을 바탕으로 재현된다. 이때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대상을 재현하므로, <보기>가 제작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사회상을 재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3** 제시된 홍보물은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를 통해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4** (가)에서는 다쳐서 주저앉아 우는 어린이 대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연장자의 이미지와 다르게, 연장자들이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 등장한다. 이렇듯 (가)와 (나)에서는 모두 기존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고정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즉, (가)는 어린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를, (나)는 연장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연령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⑤ (가)에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모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부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도 젊은 층과 노년층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25** 제시된 광고에는 ‘평균 효과 90.9퍼센트’라는 정보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26** <보기>를 통해 제작자가 제시된 광고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줄일 수 있는 거품형 손 세정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볼 때에는 매체 자료가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체 자료를 볼 때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76~177쪽

**01** 능동 표현인 ㉠의 목적어가 피동 표현인 ㉡의 주어로, 능동 표현인 ㉠의 주어가 피동 표현인 ㉡의 부사어로 바뀐다.

**02** 능동 표현인 ㉠은 꽃병을 깬 행동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혀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는 반면, 피동 표현인 ㉡은 꽃병을 깬 행동의 주체를 감추어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 **03** (1)

달혀졌는지 → 달다 + 피동 접미사 ‘-히’ + -어지다 = 달혀지다(달혀지다) (2)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교실 문이 잘 닫혔는지(달아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04** ㉡은 ‘수찬이는 어제 나에게 오늘 일찍 오라고 말했다.’로 고쳐야 한다.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기 때문이다.

**05** ㉠은 ㉡에 비해 표현의 현장감이 뛰어나고, ㉢은 ㉠에 비해 표현의 간결성이 뛰어나다. **06**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여 ‘재생’이라는 문구를 반복하였고,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심장 박동 그래프와 함께 보여 주면서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였다. **07** 헌혈에 참여하자. **08** 장면 ㉠에는 택배 배달원이 경비원에게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제작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이다. **09** 연장자 모델을 ‘나이 듦’을 부각하는 역할이 아닌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역할로 표현하였다.

**01** 능동 표현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목적어인 '아기를'이 피동 표현의 주어 '아이가'로, 능동 표현의 주어인 '엄마가'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 '엄마에게'로 바뀐다.

**평가 기준**

- 상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뀐다는 것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뀐다는 것 중 1개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하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뀐다는 것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2** ㉠에는 능동 표현, ㉡에는 피동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은 꽃병을 깬 주체를 밝혀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은 꽃병을 깬 행동의 주체를 감추어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분하고, ㉠과 ㉡에 담긴 표현의 의도를 차이점을 밝혀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과 ㉡에 담긴 표현의 의도를 차이점을 밝혀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 하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분하였으나, ㉠과 ㉡에 담긴 표현의 의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03** 주어진 문장에서는 '달혀졌는지'가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되어 어색하다. 해당 표현을 분석하면 '달혀졌는지 → 달다 + 피동 접미사 '-히-' + -어지다 = 달히어지다(달혀지다)'이며, 이를 통해 '-히-', '-어지다'라는 두 개의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장을 적절하게 고치려면 두 개의 피동 표현 중 하나만 사용하여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교실 문이 잘 닫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는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교실 문이 잘 닫아졌는지 꼭 확인하세요.'로 써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어색한 표현을 찾아 예의 형식으로 분석하고, 어색한 표현을 고쳐 문장 전체를 바르게 썼다.
- 중 어색한 표현을 찾아 예의 형식으로 분석하였으나, 어색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지 못하였다.
- 하 어색한 표현을 찾아 예의 형식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어색한 표현만 고쳐 썼다.

**04**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 따라서 ㉠에서 수찬이가 말한 '내일'은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에 해당하므로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 기준**

- 상 간접 인용으로 잘못 바꾼 것으로 ㉠을 고르고, 그 까닭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간접 인용으로 잘못 바꾼 것으로 ㉠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간접 인용으로 잘못 바꾼 것으로 ㉠을 골랐으나, 그 까닭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5** ㉠에는 직접 인용이 쓰였고, ㉡에는 간접 인용이 쓰였다. ㉠에서는 ㉠과 달리 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장감과 생동감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과 달리 '아녀', '학생' 등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내용을 더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평가 기준**

- 상 ㉠과 ㉡을 표현의 현장성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과 ㉡을 표현의 현장성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과 ㉡을 표현의 현장성과 간결성 중 1개만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06**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재생'이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 상 (가)와 (나)에서 선택한 이미지와 반복되는 문구를 비교하여 <조건>의 형식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가)와 (나)에서 선택한 이미지와 반복되는 문구를 비교하였으나,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가)와 (나)에서 선택한 이미지와 반복되는 문구 중 1개만 비교하였다.

**07** (가)와 (나)의 제작자는 혈액 백의 이미지,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 등을 선택하여 광고에 제시함으로써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헌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 상 (가)와 (나)의 제작자가 전달하려는 주제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가)와 (나)의 제작자가 전달하려는 주제를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가)와 (나)의 제작자가 전달하려는 주제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08** 장면 ㉠은 장면 ㉡에서 연결되는 장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받은 택배 배달원이 일을 하며 마주친 경비원에게 자신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상 장면 ㉠을 중심으로 제작자가 강조하려는 내용을 <조건>의 형식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장면 ㉠을 중심으로 제작자가 강조하려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장면 ㉠을 중심으로 제작자가 강조하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09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서는 그동안 '나이 늙'을 부각하는 역할을 맡던 연장자 모델을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역할로 표현하면서 연령에 따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났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 상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어떻게 변화하여 표현하였는지 <조건>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 중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어떻게 변화하여 표현하였는지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의 고정 관념을 어떻게 변화하여 표현하였는지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178~179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①

01 ㉠의 '폴리다'는 '춥던 날씨가 누그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는 '생각이나 이야기 등을 말하다.'라는 뜻의 '폴다'의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

02 ㉠의 '안겨'는 동사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고, ㉡의 '걸려'는 동사 '걸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 '깨졌다'는 동사 '깨다'에 '-어지다'를 붙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지목되었다'는 명사 '지목'에 '-되다'를 붙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3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종결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등을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보기 1>에서의 '너'는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가 되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 '너는'은 '나는'으로 고쳐야 한다. 즉 '그녀는 나에게 자기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나는 무슨 색깔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② '어제 수련이가 오늘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접 인용의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을 '내일'에서 '오늘'로 바꾸었으며(㉡), 인칭 표현도 '내' 대신 '자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결 표현을 '할게' 대신 '하겠다'로 바꾸었다(㉣). 따라서 ㉠~㉣ 중 4가지가 적용된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지시 표현으로 '거기' 대신 '여기'를 썼으며(㉡), 종결 표현으로 '와' 대신 '오냐'를 썼다(㉣). 따라서 ㉠~㉣ 중 3가지가 적용된 문장에 해당한다.

③, ④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었다(㉠). 따라서 ㉠~㉣ 중 1가지가 적용된 문장에 해당한다.

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으로 '어제' 대신 '그저께'를 썼으며(㉡), 종결 표현으로 '만났어' 대신 '만났다'를 썼다(㉣). 따라서 ㉠~㉣ 중 3가지가 적용된 문장에 해당한다.

05 (가)에서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나)의 '무인 트랙터 편'에서는 트랙터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농업이 단순 육체 노동이 아닌 무인 트랙터와 같이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혁신 산업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에서 흔히 정적인 직업에는 여학생을, 동적인 동작이나 활동에는 남학생을 등장시킨 것과 달리, (다)의 '밝은 미래 편'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깨뜨린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나)와 (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을 뿐, 새로운 고정 관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 (가)는 '호흡기 질환 20% 감소', '설사 질환 30% 감소'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난다. 이는 올바르게 손을 씻었을 때의 효과를 알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항균 효과 90.9 퍼센트'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였다. 이는 판매하는 거품형 손 세정제의 항균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에 사용된 이미지는 웃고 있는 남학생의 사진이므로, 건강한 사람의 이미지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손을 올바르게 씻지 않아 호흡기 질환과 설사 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제품을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이 아니라 상품 구매자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④ (가)가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비벼 씻자는 내용을 '비비삼'이라는 줄임말로 표현한 것과, (나)가 '90.9퍼센트', '풍부한', '촉촉한' 등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표현 방식을 통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는 질병 예방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신뢰감을 주고, (나)는 상품 구매자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⑤ (가)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이고, (나)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려는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 광고'이다.

#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 01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 소단원 한눈에 보기

184-187쪽

- 1 (1) O (2) X (3) O    2 (1) 인과 (2) 정의    3 구조, 내용  
 4 ④    5 비교    6 (1) X (2) O (3) O  
 7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    8 (1) 근거 (2) 주장, 이유 (3) 예상 반론  
 9 (1) O (2) X (3) O    10 유추  
 11 (1) X (2) X (3) O    12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13 ①

- 1 (1)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이다.  
 (2)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3)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은 비교이고,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은 대조이다.
- 2 (1)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라는 원인으로 '강물이 크게 불었다'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2) 민주주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3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 5 '과거-현재-미래'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6 (1)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반면에 아이들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낀다.  
 (2) 재미있는 일에 한참 빠져 있을 때에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3) 동굴 안에서 생활할 때와 같이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 7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 자신은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 8 (1) 사례, 통계 수치 등과 같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라고 한다.  
 (2) 논증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견을 주장이라고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을 이유라고 한다.  
 (3)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의견을 예상 반론이라고 한다.

- 9 (1)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으로, 귀납 논증에 속한다.  
 (2)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연역에서 대전제는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나, 소전제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  
 (3)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따라서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많을수록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

- 10 민들레와 개나리가 봄에 꽃이 피며 꽃잎이 노랗다는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풀이 많은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 11 (1) 「기다려라, 그 순간을 위해!」의 글쓴이는 서론에서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속도의 시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본론에 제시된 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에 해당한다.  
 (3) 글쓴이는 결론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며, 원하는 순간을 얻기 위해 눈과 마음을 열고 묵묵히 기다리는 태도를 당부하였다.

- 12 「기다려라, 그 순간을 위해!」의 글쓴이는 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13 주장하는 글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주장을 강조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내용 확인 문제

192-195쪽

- 1 ①    2 ④    3 예시    4 ①    5 ①  
 6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1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모두 거꾸로 흐를 수 없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 ③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 ④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인 시간이다.
- ⑤ '딥 타임'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실제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는데, 이처럼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2** 처음 ㉠에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두 시간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에서 비교의 방법으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밝히고, 대조의 방법으로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3** ㉠은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경우를 '딥 타임' 실험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② 아이들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③ '끝' 부분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같지만,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개인의 마음속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 ④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도 동굴 안에서 생활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 ⑤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끼는 사례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3분을 세어 보도록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실제로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느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흐르지 않고 잠시 멈추는 바람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6**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 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은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활동 응용 문제**

196~199쪽

- 1** ⑤      **2** ①      **3**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      **4** ③      **5** 분석
- 6** 구분, 정의      **7** ①      **8** ④

**1** 이 글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시간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을 뿐,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질문 2'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묻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③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 ④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 ⑤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이다.

**3** 이 글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이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4**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때 원인이 먼저 제시될 수도 있고, 결과가 먼저 제시될 수도 있으므로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보기>에서는 모두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6**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에서 대상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다.'에서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7** 이 글의 '중간'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 비교, 대조이다. 반면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귀 사람이다.'에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② 개나리와 진달래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④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⑤ 농구와 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8 <보기>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두 대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내용 확인 문제** 200~204쪽

1 ③      2 ④      3 귀납      4 기다림의 시간  
5 음식을 맛보는 일, 사는 일      6 ⑤      7 ③

1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자신의 두 눈처럼 지니고 다니며 보이는 것들을 응시하다가 원하는 장면을 낚아챈 사진작가 브레송의 사진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을 얻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브레송의 사진은 우연히 얻은 광경이 아니라 눈과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한 끝에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②, ④ 사진을 쉽게 찍고, 찍기 쉬운 만큼 지우기도 쉬워 여러 장을 빠르게 연달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는 기다림의 흔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브레송의 사진과 대조된다.  
⑤ 브레송의 사진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계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다.

2 세잔과 정선은 모두 대상을 오랜 시간 꾸준히 관찰하고 낫선 차이를 포착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세잔과 정선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정선은 오랜 시간 관찰하여 포착한 낫선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을 변형하여 그림에 담았다.

3 '본론'에서는 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4 글쓴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 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결론 ①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6 결론 ②에서 글쓴이는 기다림의 시간 없이도 원하는 순간을 우연히 얻을 수 있다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원하는 것을 바로 얻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우연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화제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글 전체에서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②, ③ 예상 반론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거나 근거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예상 반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반박하고 있다.

7 이 글에서 글쓴이는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며, 원하는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묵묵히 기다려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즉,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05~209쪽

1 ③      2 기다림      3 ⑤      4 유추      5 (따라서)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6 ⑤      7 ②      8 ③  
9 ⑤

1 '본론'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론'에서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이러한 세상이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④ '본론'에서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브레송의 사례, 세잔의 사례, 정선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결론'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며, 원하는 순간을 얻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는 태도를 당부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집약된 표현은 '기다림'이다.

3 이 글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에는 브레송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 이유인 '결정적인 순간은 기다림을 포함한 꾸준한 관찰로 얻을 수 있다.'에는 세잔과 정선의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기다림의 시간 없이도 우연한 계기로 원하는 순간을 얻기도 한다.'는 이 글에서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다.

활동 응용 문제

- 1 ㄱ. 분류 ㄴ. 인과 ㄷ. 대조 2 ⑤ 3 ③ 4 틀  
 린 내용이기 때문이다. /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 음악은 아름답다.

4 <보기>는 물과 산소가 있다는 지구와 화성의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듯이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5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닭은 알을 낳는다.', '참새도 알을 낳는다.'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닭과 참새는 새이다.'라는 구체적 사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새는 알을 낳는다.'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6 ㉠~㉢에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역에서 대전제(㉠)가 틀리면 소전제(㉡)가 맞아도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은 연역 논증의 대전제로,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한다.  
 ② ㉡은 연역 논증의 소전제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③ ㉢이 없어도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연역 논증이 성립된다.  
 ④ ㉢은 대전제인 ㉠과 소전제인 ㉡을 근거로 이끌어 낸 결론에 해당한다.

7 <보기>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④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거나, 일반적 원리를 근거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없다.  
 ③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연역의 논증 방법에 해당한다.  
 ⑤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유추의 논증 방법에 해당한다.

8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유추의 논증 방법은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결론을 정해 놓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전제와 소전제는 연역의 논증 방법에서 근거로 활용하며, 유추의 논증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④ 유추의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 아니라 귀납 논증에 속한다.  
 ⑤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9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ㄴ),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지(ㄷ) 판단할 수 있고,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ㄷ)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 ㄱ은 작은 단위인 선풍기와 에어컨을 냉방기라는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 ㄴ은 '햇볕이 뜨겁고 날이 더워서'라는 원인과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라는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ㄷ은 여름철 실외와 실내를 견주어 햇볕이 뜨거운 실외는 온도가 높지만 에어컨을 가동한 실내는 온도가 낮다는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2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⑤는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풍기와 아이스크림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비교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에어컨은 실외기가 필요하지만 선풍기는 실외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②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어서'라는 원인과 '감기에 걸렸다.'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③ 여름에 자주 먹는 음식의 구체적인 예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④ '감기에 걸린 것'이라는 결과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3 ㉠ '논증 1'은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민서와 진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감기에 걸렸다는 사례를 근거로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결론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적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아이스크림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등 사례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논증 1'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⑤ 민서와 진호가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고 감기에 걸렸다고 했으므로 사례가 일관성이 있다. 또한 민서와 진호의 사례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는 결론과 관련이 있다.  
 ② 민서와 진호의 사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수가 너무 적다.  
 ④ 민서와 진호의 사례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4 에어컨 바람을 쐬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린다.'는 틀린 내용이다. 연역 논증에서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모두 옳아야만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인 <보기>는 대전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틀린 내용'이라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5 연역 논증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대전제가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이고 결론이 '따라서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이므로, 대전제와 결론을 연결해 주는 소전제로는 '음악은 아름답다.'가 적절하다.

5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마무리

214~215쪽

- 1 ④      2 (1) O (2) X (3) O      3 ①      4 (1) X  
 (2) X (3) O      5 ②      6 ①

1 '나무는 잎의 모양에 따라 활엽수와 침엽수로 나뉜다.'에는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밤새 잠을 설치서'라는 원인과 '아침에 늦잠을 잤다.'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② '장미, 라일락, 개나리'와 같이 작은 단위를 '봄에 피는 꽃'이라는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③ 음운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⑤ 탁구와 야구를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다.

2 (1)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것과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3)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재미있을 때는 왜 시간이 빨리 갈까?」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를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와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4 (1)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은 이유이다. 근거는 사례, 통계 수치 등과 같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2)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3)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이다.

6 「기다려라, 그 순간을 위해!」의 '본론'에서는 브레송의 사진, 세잔의 그림, 정선의 그림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이 글의 '본론'에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으로, 이 글의 '서론'에 사용되었다.

③ 대전제가 틀린 경우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④ 귀납은 근거가 되는 사례가 많을수록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거나 사례에 예외가 있는 경우 논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⑤ 둘 이상의 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은 유추로, 이 글의 '결론'에 사용되었다.

### 문해력 키우기

217~219쪽

- 1단계 | 1 묵묵히      2 추측하다      3 인과  
 4 절대적      5 결정적      6 개념      7 생생하다  
 8 고이다      9 무디다      10 쏠리다      11 분석  
 12 객관적      13 설명      14 부여되다      15 연역

- 2단계 | 1 각성      2 마구      3 시속      4 유추  
 5 자극      6 주기      7 낮설다      8 설득력  
 9 상대성      10 둘러싸다      11 무아지경  
 12 쏟아지다      13 적응하다      14 가로지르다

- 3단계 | 1 맞바꾸기      2 자발적      3 대중화  
 4 구체적      5 과감한      6 예 논리적인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다.      7 예 훼손된 자연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8 예 시골집에서 여름밤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9 예 세계의 각 국가는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10 예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는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

| 1단계 |

- 1 **오답 풀이** 꾸준하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 2 **오답 풀이** 인식하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 3 **오답 풀이**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
- 4 **오답 풀이** 상대적: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
- 5 **오답 풀이** 단편적: 전반에 걸치지 않고 한 부분에 국한된 것.
- 6 **오답 풀이** 근거: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 7 **오답 풀이** 절묘하다: 비할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묘하다.
- 8 **오답 풀이**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質)이나 양(量)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 9 **오답 풀이** 마비되다: (비유적으로) 본래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다.
- 10 **오답 풀이** 굴리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
- 11 **오답 풀이** 대조: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 12 **오답 풀이** 주관적: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
- 13 **오답 풀이** 논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 14 **오답 풀이** 유래되다: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게 되다.
- 15 **오답 풀이** 귀납: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이끌어 내는 일.

소단원 평가

220~223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예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06 ⑤    07 ②    08 ②    09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10 ③    11 ②    12 ②    13 ⑤
- 14 ②    15 연역,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감기에 걸린다.'라는 대전제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논증의 결론도 타당하지 않다.

01 (라)에서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할 때에는 천천히 가던 시간이 친구와 놀 때에는 왜 이렇게 빨리 갈까?'와 같이 독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⑤ (마)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02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두 거꾸로 흐를 수 없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크로노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절대적인 시간인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영향을 받아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간이다.

②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다.

03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할 때에는 천천히 가던 시간이 친구와 놀 때에는 빨리 가는 까닭은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에 몰입하여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리). 즉,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는 마음속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흐르지 않고 잠시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ㄴ).

**오답 풀이** 가.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절대적인 시간이므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은 아니다.

ㄴ.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것은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 놀 때이다.

04 (라)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의 느낌일 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상대적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 요약, 정리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정도를 속도에 빗대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흐르는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아이들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한다는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나이별로 마음속으로 3분을 세어 보도록 한 실험의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5 (나)는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실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보기>는 발효 식품의 뜻을 풀이하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의와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나)와 <보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며,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임을 밝히고, 설명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6 (가)에서 ㉠ '어른들'과 ㉡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은 모두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간이다.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

07 ㉢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은 특별하게 느껴지므로'라는 원인과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어젯밤부터 비가 와서(원인) 오늘 운동회가 취소되었다(결과).'도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자전거의 변속 및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문화유산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도로를 작은 단위인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8 (가)에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역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으로(ㄷ),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으로 구성된다(ㄱ).

오답 풀이 ㄴ.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ㄹ.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09 (다)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0 ㉢은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비슷하다는 내용을 이끌

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일 뿐, 화제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11 글쓴이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우연히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였으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브레송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자신의 두 눈처럼 지니고 다녔다고 하였으므로, 브레송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준비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④ (라)에서 우연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였으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다)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의 다채로움을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12 정선은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낯선 차이를 포착해 내기 위해 폭포를 오랜 시간 관찰하며 기다렸다. 또한 정선은 포착한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을 변형하여 표현했다고 하였으므로, 정선이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13 (가)~(마)는 세잔과 정선의 사례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귀납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세잔과 정선의 사례에서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④ 귀납은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거나, 사례에 예외가 있는 경우 논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14 글쓴이는 오랜 시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끝에 대상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그린 세잔과, 꾸준한 관찰 끝에 대상의 결정적인 순간을 화폭에 담은 정선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5 제시된 논증 방법은 연역으로, 연역은 대전제와 소전제가 모두 옳아야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논증의 대전제가 틀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은 결론도 타당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증의 대전제가 틀려 결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 02 설명하는 글 쓰기

### ★ 소단원 한눈에 보기

226~227쪽

- 1 (1) O (2) X (3) X    2 (1) 계획하기 (2) 생성하기 (3) 조직하기    3 ②    4 (1) 주제 (2) 내용 (3) 문단  
5 ⑤    6 ③    7 인과

1 (1) 설명하는 글은 독자가 어떠한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2)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맞추어 짜임새 있게 쓴다. 따라서 설명 대상에 따라 글의 구조나 형식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쓰며, 글쓴이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2 (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종류, 예상 독자, 주제 등을 정한다.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2)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글에 활용할 정보를 선정한다.

(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리한다.

3 고쳐쓰기는 표현하기 다음 단계에서 한 차례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글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고쳐쓰기는 자신이 쓴 글을 주제나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다.

③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내용, 조직, 표현 등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글을 수정한다.

④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글을 수정한다.

4 (1), (2) 고쳐쓰기를 할 때 내용 차원에서는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 등을 점검한다.

(3) 고쳐쓰기를 할 때 조직 차원에서는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등을 점검한다.

5 고쳐쓰기를 할 때 표현 차원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흡이 자연스러운지,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지는 조직 차원에서 점검할 내용이다.

6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의 ‘중간’ 부분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과 그 까닭, 스트레스의 종류,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7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고 제시되어 있다.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본문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이 학업 및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이라고 하였다.

### ✍ 활동 응용 문제

230~237쪽

- 1 계획하기    2 ②    3 ②    4 ①    5 ⑤  
6 ⑤    7 ⑤    8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9 ②    10 글의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 등에 맞도록 글을 보완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글쓰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목적과 종류, 예상 독자, 글의 주제를 정하는 단계는 ‘계획하기’이다.

2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정하여 글을 쓸 때에는 중학생의 지식수준과 기대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글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 중학생인 예상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중학생의 지식수준에 맞추어 스트레스의 개념 등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거나 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3 진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설명할지 떠올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을까?’, ‘스트레스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등을 떠올렸다. ‘스트레스 반응 척도’는 예상 독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의 예로 제시하였을 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정한 후 스트레스에 관하여 설명할 내용으로 떠올린 것은 아니다.

4 진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종류, 글의 예상 독자(ㄱ), 글에서 설명할 내용, 글의 목적과 주제(ㄴ) 등을 정하였다.

**오답 풀이** ㄷ, ㄹ. 진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설명할지 떠올려 보았으나, 정보를 수집할 매체나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5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사전, 누리집, 책,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설명할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설명할 내용에 적절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즉 설명할 대상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라)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며,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분석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인과와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중학생의 경우 학업이,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7 진서는 개요를 작성한 후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예상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중간 1'과 '중간 2'의 제시 순서를 바꾸었다. 그러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진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글의 개요를 작성하면서 '스트레스'라고 글의 제목을 정하였다.

② 진서가 작성한 개요는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인 '처음-중간-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진서는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각 내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설명 방법도 함께 정리하였다.

④ 진서는 '중간 3'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원인을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예상 독자인 청소년의 공감을 얻으려 하고 있다.

8 진서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고, 그 둘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려 하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9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내용, 조직, 표현 등 다양한 차원과 방법

으로 글을 수정한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 중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와 관련이 있다.

10 고쳐쓰기는 자신이 쓴 글을 주제나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으로, 글의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에 맞도록 글의 구성이나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을 보완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활동 응용 문제**

242-243쪽

1 ②      2 ③      3 ㄱ, 정의 ㄴ, 분석      4 ①

1 '우리 학교 설명서'를 읽을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은 우리 학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므로, 예상 독자로 적절하지 않다.

2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자가 사는 곳은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학교 설명서'의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독자의 기대나 요구, 태도에 맞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②, ④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독자의 연령대나 지식수준에 맞는 단어 나 표현 등을 사용해야 한다.

3 '학교 이름의 뜻'은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ㄱ), '학교 건물의 구조'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ㄴ).

4 방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상자를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은 단위인 '문구류 상자', '옷 상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③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⑤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이다.

## 소단원 마무리

247쪽

- 1 ④    2 ⑤    3 (1) O (2) X (3) O (4) X    4 ②  
 5 ①    6 (1) X (2) O (3) O

1 설명하는 글은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맞추어 짜임새 있게 쓴다.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갖추어 쓰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2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 표현 등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종류, 예상 독자, 주제 등을 정한다.

②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활용할 정보를 선정한다.

③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설명 방법을 정리한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개요에 맞추어 설명하는 글을 쓴다.

3 (1)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집중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2)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3)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변한 사람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약 37퍼센트인 반면, 성인은 20퍼센트 후반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4 이 글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를 설명할 때에는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 예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5 고쳐쓰기는 자신이 쓴 글을 주제나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오답 풀이** ②, ⑤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글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 조직하거나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지며,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번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③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을 주제나 목적에 맞게 다듬는 활동이다.

④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도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6 (1)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직, 표현 등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글을 수정한다.

(2)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글을 점검하고 수정한다.

(3)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글을 수정한다.

## 문해력 키우기

249-251쪽

|1단계| 1 정체    2 불면증    3 독자    4 조정하다

5 태세    6 비중    7 털어놓다    8 적응하다

9 호응    10 부담    11 학업    12 안정화

13 대비하다    14 차원    15 통계

|2단계| 1 이완    2 전략    3 질한    4 체력

5 함량    6 민감도    7 신경증    8 심박수

9 호르몬    10 향상성    11 감당하다    12 배경지식

13 분비되다    14 파헤치다

|3단계| 1 통일성    2 섭취하는    3 전반적

4 대응하기    5 진로    6 ㉠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7 ㉡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

8 ㉢ 가상 세계에 빠져 현실 세계에서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 ㉣ 교육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0 ㉤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 |1단계|

1 **오답 풀이** 특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2 **오답 풀이** 우울증: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

3 **오답 풀이** 청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

4 **오답 풀이**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5 **오답 풀이** 행태: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6 **오답 풀이**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7 **오답 풀이** 긴밀하다: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8 **오답 풀이** 지속되다: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

9 **오답 풀이** 공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10 **오답 풀이** 긴장: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11 **오답 풀이** 진로: 앞으로 나아갈 길.

12 **오답 풀이** 민감도: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정도.

13 **오답 풀이** 대응하다: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14 **오답 풀이** 의문: 의심스럽게 생각함. 또는 그런 문제나 사실.

15 **오답 풀이** 실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

**소단원 평가**

252~253쪽

01 ③      02 ㉠-㉡-㉢-㉣-㉤      03 ④      04 ③

05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06 ③      07 ④      08 ⑤

09 ④

01 설명하는 글은 독자가 어떠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다.

②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④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맞추어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한다.

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종류, 예상 독자, 주제 등을 정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정보를 선정하며,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사용할 설명 방법을 정한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개요에 맞추어 설명하는 글을 쓰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03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글쓰기 계획에서 예상 독자는 중학생들인데,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개발 과정은 중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므로 글에 활용하기 위해 선정한 정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스트레스의 뜻과 종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은 스트레스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중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과 주제, 글의 종류,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정보이다.

②, ③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은 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과 주제, 글의 종류,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정보이다.

04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 부분에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보기 1>에서는 (나)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는 까닭을 추가하여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 2>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호흡을 자주 하는 등 전반적인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나)에 이 내용을 추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몸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는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6 (라)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동일한 상황을 예로 들어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대조는 사용되었으나, 구분은 사용되지 않았다. 구분은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② 비교와 분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고,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예시는 사용되었으나, 비교는 사용되지 않았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⑤ 인과와 정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이다.

07 (바)에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 상담 기관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근육 이완 훈련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08 제시된 문장은 ㉠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므로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친 것이다. 따라서 표현 차원에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응 관계가 자연스러운지 점검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②, ③, ④ 조직 차원의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09 ㉔는 내용이 앞 문단과 긴밀하게 이어지므로 문단을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대단원 평가

258~263쪽

- 01 ③    02 ①    03 동굴 안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  
해져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04 ④
- 05 ⑤    06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  
해야 한다.    07 ①    08 ④    09 ②    10 연  
역,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하다.    11 ②    12 ④    13 ②    14 ⑤
-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⑤
- 20 ③    21 ③    22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01 이 글에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에 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딥 타임' 실험의 목적과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라)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까? 첫 번째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이다.'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독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라)와 (마)에서 상황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을 예시, 인과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㉔는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은 ㉔에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② ㉔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③ ㉔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비교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④ ㉔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㉔은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03 '딥 타임' 실험의 참가자들이 동굴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은 40일이었지만 대부분 동굴에서 생활한 기간을 30일 정도로 추측한 까닭은, 동굴 안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자연스럽게 시간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굴 안에서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4 (다)와 (라)에서는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도 동굴 안에서 생활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며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로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정도를 속도에 빗대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라)에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고, 반복되는 일상은 상대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에 비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5 (가)와 (라)를 통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상황(㉔)을 알 수 있으며, (가)를 통해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까닭(㉔)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㉔. (마)에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으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㉔. 상대적인 시간을 서로 다르게 느끼는 까닭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시간이 변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6 글쓴이는 (마)에서 '매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질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24시간으로 같지만, 개인의 마음속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만큼은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함을 당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함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7 (다)에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할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이해한 지수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㉔ (다)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아 자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㉕ (마)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같지만 개인의 마음속 시간만큼은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㉖, ㉗ (가)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흐르지 않고 잠시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08** (가)에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빠른 것을 찾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㉑ (가)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속도의 시대에 우리의 감각은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자극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㉒ (나)에서 '관찰'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다.

㉓ (다)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닌 브레송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㉔ (가)에서 무엇이든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속도의 시대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9** 글쓴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자신의 두 눈처럼 지니고 다니며 보이는 것들을 응시한 브레송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0** (나)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으로,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루어진다. (나)에서는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대전제와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도 관찰에 해당한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역과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의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1** ㉑ '브레송의 사진'은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의 세포를 열어 둔 채 꾸준히 기다려서 얻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는 기다림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대비되며(㉒), 좋은 장면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계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㉓).

**오답 풀이** 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㉕. 브레송은 사진을 찍을 때 인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장면을 포착하였다.

**12** (마)에서 '누군가는 기다림 없이도 원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연히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원하는 것을 바로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연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지요.'라고 반박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3** (가)에서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브레송, (나)에서 오랜 시간 산을 관찰하며 기다려 원하는 산의 모습을 그린 세잔, (다)에서 오랜 시간 관찰하며 폭포가 지닌 낮선 차이를 포착하여 이를 화폭에 담은 정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라)에서는 브레송과 세잔, 정선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오답 풀이** ㉑, ㉓.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이다. 연역은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된다.

㉒. 귀납은 근거가 되는 사례가 많을수록 결론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거나 예외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14**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지,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㉑). 또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㉒).

**오답 풀이** ㉓.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므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근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5**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글쓴이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16**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글에 활용하기 위해 선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설명 방법을 정리한다. 즉 수집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이 글에서 (가)는 '처음', (나)~(마)는 '중간', (바)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마)에서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마)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18**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지식수준 등에 따라 글에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설명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예상 독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나 글쓰기 과정, 설명하는 대상이나 대상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19 (마)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스트레스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나)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에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라)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 (나)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개념은 스트레스의 뜻을 알 수 있는 사전 자료(ㄴ)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은 이것을 설명하는 책 자료(ㄷ)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ㄱ. 스트레스의 종류는 (다)와 (라)에서 설명하고 있다.

ㄴ.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은 (마)에서 설명하고 있다.

21 ㉞은 내용이 앞 문단과 긴밀하게 이어지므로 'c.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를 고려하여 앞 문단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를 '그래서'로 바꾸는 것은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㉞은 a를 고려하여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므로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㉞은 b를 고려하여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㉞은 f를 고려하여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응답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㉞은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다. 따라서 e를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므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2 ㉠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이때 접속어 '반면'을 추가하면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1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2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는 크기가 작아 몸에 지니고 다니기 편리하다. / 손목시계는 연결된 줄로 손목에 끼워 휴대하는 반면, 회중시계는 주머니 등에 넣어 휴대한다.

03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㉞이 대전제, ㉞이 소전제, ㉞이 결론에 해당한다.

04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05 ㉞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설명 방법을 정리하며, ㉞에서는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06 (다)와 (라)에는 공통적으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다)에서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대조하였고 (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대조하였다.

07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가?

08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는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친다.

01 (가)에서는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구분이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각각 풀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평가 기준

- 상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설명 대상을 포함하여 두 가지 설명 방법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중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설명 대상을 포함하여 두 가지 설명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하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설명 대상을 포함하여 한 가지 설명 방법만 서술하였다.

02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비교와 대조이다.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소재로 하여,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면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는 크기가 작아 몸에 지니고 다니기 편리하다.' 등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면 '손목시계는 연결된 줄로 손목에 끼워 휴대하는 반면, 회중시계는 주머니 등에 넣어 휴대한다.' 등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평가 기준

- Ⓢ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소재로 하여 서로 간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문장과 차이점을 대조하는 문장을 각각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소재로 하여 서로 간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문장과 차이점을 대조하는 문장을 서술하였으나,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소재로 하여 서로 간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문장과 차이점을 대조하는 문장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03 (다)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역 논증은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되는데, (다)에서 대전제는 ㉠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이고, 소전제는 ㉡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도 관찰에 해당합니다.'이며, 결론은 ㉢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이다.

평가 기준

- Ⓢ 논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혀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논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혀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논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서술하였으나,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히지 못하였다.

04 (라)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즉,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평가 기준

- Ⓢ 비슷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밝혀 논증의 결론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비슷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밝혀 논증의 결론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논증의 결론을 서술하였으나, 비슷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05 ㉠에 해당하는 글쓰기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고, ㉡에 해당하는 글쓰기 단계는 '고쳐쓰기'이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설명 방법을 정리하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평가 기준

- Ⓢ ㉠과 ㉡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씩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과 ㉡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씩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과 ㉡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만 서술하였다.

06 (다)에는 구분, 대조,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 (라)에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와 (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대조이다. (다)에서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대조하였고, (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대조하였다.

평가 기준

- Ⓢ 설명하는 대상을 포함하여 (다)와 (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설명하는 대상을 포함하여 (다)와 (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다)와 (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설명하는 대상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07 글을 고쳐 쓸 때에는 내용, 조직, 표현 등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글을 수정한다. 이때 내용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으로는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가?' 등이 있다.

평가 기준

- Ⓢ 내용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을 세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 Ⓜ 내용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을 두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 Ⓛ 내용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08 고쳐쓰기를 할 때 표현 차원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흡이 자연스러운지,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마)에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인데,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흡이 어색하므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야 한다.

평가 기준

- Ⓢ 표현 차원에서 점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쳐 써야 하는 내용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표현 차원에서 점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고쳐 써야 하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표현 차원에서 점검한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266~267쪽

- 01 ①      02 ②      03 ②      04 ①      05 ③
- 06 ③

**01** (가)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쓰고, 주장하는 글 역시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쓴다.

**오답 풀이** ② 설명하는 글은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맞추어 짜임새 있게 쓰고,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쓴다.

③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의견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쓰고,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쓴다.

④, ⑤ 설명하는 글은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장하는 글은 논증 요소에 맞는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를 설득한다.

**02** (가)에서는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은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소설의 구성 단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소설의 구성 단계를 설명하기 적절한 설명 방법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므로 인간과 유인원의 유사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③ (가)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이므로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므로 축구와 농구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⑤ (가)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021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진행된 '딤 타임' 실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청소년이 즐겨 하는 운동의 종류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03** (나)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귀납이다. ②는 일주일 동안 본 까마귀가 모두 검은색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작은 개울과 개인의 목소리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물체인 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포유류는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른다는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포유류인 고래는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른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나와 동생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키가 크다는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4** 이 글은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개념이나 종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마)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스트레스의 개념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에 대해 설명한 후, (다)에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끝' 부분인 (바)에서 '중간' 부분인 (나)~(마)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⑤ (다)에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05** (나)에서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뜻을 풀이하였고,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설명하였다. (다)에서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한 후,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라)에서는 예시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마)에서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점을 밝히고,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06** (라)에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예시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예시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은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설명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라)는 앞 문단의 내용과 긴밀하게 이어지므로 앞 문단과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점검 항목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이다.

**오답 풀이** ① (나)를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가?'라는 항목으로 점검할 때, 마지막 문장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② (다)를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라는 항목으로 점검할 때,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사이에 '반면' 등의 접속어를 추가해야 한다.

④ (마)를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라는 항목으로 점검할 때, '응답'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맞춤법에 맞게 '응답률'로 바꾸어야 한다.

⑤ (바)를 '문장에 쓰인 단어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라는 항목으로 점검할 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문장에 쓰인 단어 사이의 호응이 어색하다. 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므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야 한다.

#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 01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소단원 한눈에 보기

272~273쪽

- 1 (1) X (2) X    2 (1) 상황 (2) 배경지식    3 ④  
 4 (1) 자신감 (2) 존중    5 (1) O (2) X (3) X    6 ②

1 (1)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1)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기 위해, 듣기·말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목적,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다른 사람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화자는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한다.

3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듣기·말하기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4 (1) 현서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 목소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신의 의견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자신감 있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 지후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한 친구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조정하기 위해,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5 (1) 청중이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말하기 불안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말하기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2) 말하기 불안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난다.

(3)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부족할수록 말하기 상황에서 실수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6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청중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사소한 반응을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말하기 불안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④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말하기 불안 극복 체조를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 주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 활동 응용 문제

276~287쪽

- 1 ②    2 상대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3 ④    4 ①    5 ④  
 6 ⑤    7 ④    8 ⑤    9 상황, 맥락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였다.  
 15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듣는다.    16 ①    17 ④    18 ④    19 ①  
 20 ④    21 ④

1 (1)의 (가)에서 여학생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남학생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남학생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2 아빠는 ㉠에서 딸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딸이 이해하기 어려운 '오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빠와 딸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빠는 ㉡과 같이 딸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금'을 '무릎 뒤쪽'이라고 쉽게 풀어서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였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3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면 상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주고받으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듣기·말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목적, 대화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등을 파악하며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분석하며, 향후 듣기·말하기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듣기·말하기 후의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④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듣기·말하기 중의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5 대화에 참여할 때에는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6 우주는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서아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면서, 서아가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따라서 우주에게 대화 상황에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현서는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므로, 자신감을 갖고 말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④ 지후는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주제로 하자는 현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식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서아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듣기·말하기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배가 고프다며 같이 라면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듣기·말하기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이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이라는 주제가 식상하다는 지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또한 지후는 척추 옆굽음증을 이번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서아의 말을 듣고 손바닥을 마주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후는 과제의 주제를 청소년의 바른 자세로 정하자는 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현서와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바닥을 마주치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서와 지후가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청소년의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정하고자 말한 사람은 우주이다.

⑤ 현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며 모둠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후는 상대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모둠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지 않다.

8 ㉠에서 서아는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9 우주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대화하는 듣기·말하기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바른 자세를 모둠별 주제로 정하자는 서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10 듣기·말하기는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이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지후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의견에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조정하기 위해,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

더라도 존중하고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로 하였다.

12 화자의 말에 담긴 의미를 겉으로 드러난 대로만 받아들이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연설은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이므로, 말하기 과정에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말하기이므로,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③ 발표는 청중에게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이므로, 청중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나누어 상대측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13 듣기·말하기 과정은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자는 말하기 과정에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말해야 하고, 청자는 듣기 과정에서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화자는 말하기 과정에서 말하기 상황과 목적, 청자의 반응,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④ 청자는 듣기 과정에서 화자의 말이나 말하기 방식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14 강연자는 청자인 학생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통례적', '전조후침' 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연자가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청자인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였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 통례적 일반적으로 통하여 쓰는 전례와 같은 것.
- 전조후침 통치 공간인 정전은 궁궐의 앞쪽에, 주거 공간인 침전과 후원은 궁궐의 뒷부분에 세우는 건물 배치의 원칙을 말함.

15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청자는 화자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들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만약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화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며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들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6** 말하기 불안은 특정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②, ③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

④, ⑤ 말하기 불안은 화자로 하여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긴장감과 부담을 느끼게 하고, 말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17** 서아는 청중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말을 지루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아는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발표를 하고 있다.

② 서아는 매일 보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중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서아가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발표 내용을 다 함께 열심히 조사했다고 하였으므로, 서아가 발표할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18** 청중이 낮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을 느끼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①은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②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청중의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③은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⑤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19** 말하기 불안을 겪게 되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실수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말하기 상황과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0** (가)는 뮤지컬 배우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도 말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긴장을 덜 하여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과도한 완벽주의와 부담감을 불러일으켜 불안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긴장될 때 심호흡을 반복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스트레칭은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신체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③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자신감을 높여 준다.

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288~289쪽

1 ①      2 은하      3 말할 내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4 ③

**1** 청중이 아닌 특정한 공간이나 한 명의 청중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면 다른 청중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시선을 받는 청중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화자가 말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기보다는 모든 청중들을 고루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시선을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은하는 지우의 말에 무심한 어조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듣기·말하기 태도를 보인 학생은 은하이다.

**3** <보기>에 나타난 듣기·말하기 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할 내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청중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발표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4** <보기>의 인물은 말을 더듬는 증상으로 인해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이때 자신의 말 더듬 증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빠른 속도로 말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더 긴장하고 말 더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②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주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⑤ 말하기 상황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 소단원 마무리

292~293쪽

1 ③    2 ②    3 (1) O (2) O (3) X    4 (1) O (2) X (3) O    5 ④    6 ④

**1**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의사소통 목적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점검하며 조정할 점을 찾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의미를 명확하게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청자가 질문을 하거나 화자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듣기·말하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1)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듣기·말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목적,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화자는 청자의 표정이나 반응을 통해 청자가 자신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청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명 방법을 바꾸는 등 실시간으로 말하기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3) 듣기·말하기 과정이 끝난 후에 점검한 내용은 해당 듣기·말하기 과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음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듣기·말하기를 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

**4** (1)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

(2) 말하기 불안은 말을 하기 전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중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불안 증상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청중 앞에서 말할 때 긴장감으로 인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은 말하기 불안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5** 규리는 매년 교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풍부하므로, 청중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익숙하여 말하기 불안을 덜 느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말하기 불안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

② 말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말하기 불안을 더 쉽게 겪을 수 있다.

③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겪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⑤ 낯선 청중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말하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여 불안을 키울 수 있다.

**6**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수록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정작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익숙하지 않아 불안과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발표 상황을 피하는 것은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문해력 키우기

295~297쪽

**|1단계|** 1 청자    2 이상    3 반복하다    4 향후  
5 성찰하다    6 확고하다    7 다짐    8 치중되다  
9 맥락    10 단호하다    11 끈기    12 좌우명  
13 부담스럽다    14 능동적    15 분석하다

**|2단계|** 1 담화    2 소통    3 오금    4 연설  
5 진로    6 조정    7 본받다    8 식습관  
9 적신호    10 민감하다    11 배경지식  
12 보조하다    13 식사하다    14 즉석식품

**|3단계|** 1 개선해    2 낮설게    3 명확하게  
4 심호흡    5 점검    6 예 동생은 엄마가 아끼는 접시를 깨뜨리고는 엄마에게 혼날까 봐 불안에 떨었다.    7 예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예 토론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9 예 그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나머지 진땀을 흘렸다.    10 예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낭비하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면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

## |1단계|

1 **오답 풀이** 화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

2 **오답 풀이** 암시: 넌지시 알림. 또는 그 내용.

3 **오답 풀이** 극복하다: 악조건이나 괴상 등을 이겨 내다.

4 **오답 풀이** 목적: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5 **오답 풀이** 실천하다: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다.

6 **오답 풀이** 간결하다: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7 **오답 풀이** 지적: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8 **오답 풀이** 사로잡히다: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다.

9 **오답 풀이** 어조: 말의 가락.

10 **오답 풀이** 완화하다: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다.

**11** **오답 풀이** **자신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음이 있다는 느낌.

**12** **오답 풀이** **배경지식**: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

**13** **오답 풀이** **부산스럽다**: 보기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여수선한 데가 있다.

**14** **오답 풀이** **긍정적**: 바람직한 것.

**15** **오답 풀이** **인식하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 소단원 평가

298~299쪽

**01** ⑤    **02** ④    **03** ②    **04** 서아가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이다.

**05** ④    **06** ④    **07** 심호흡을 반복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 보.

**01** 듣기·말하기 후에는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이 적절했는지 성찰하면서 조정할 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듣기·말하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청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표정이나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듣기·말하기 중에 해야 할 일이다.

② 청자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둔 채 말하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자와 눈을 맞추며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준비한 대본을 그대로 따라 읽기보다는 청자의 반응에 따라 말하기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말해야 청자가 흥미를 가지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들을 수 있다.

④ 듣기·말하기 후, 듣기·말하기 과정을 평가할 때에는 잘한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도 점검하여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02** (나)에서는 아빠가 딸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여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아빠가 딸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다)에서 현서는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의견을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므로,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ㄱ). 또한 지후는 현서의 의견에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ㄷ).

**오답 풀이** 나. 서아는 친구들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척추 옆굽음증'이란 용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ㄹ. 우주는 서아가 대화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대화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서아의 말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주가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04** 서아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듣기·말하기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배가 고프니 라면을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우주는 지금 과제의 주제를 정하려고 대화 중이었다고 짚어 주면서, 서아가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주가 ㉠과 같이 말한 까닭을 서아의 듣기·말하기 태도와 관련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5**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긴장하는 서아의 모습을 통해, 서아가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관심사와 맞지 않는 화제에 무관심한 태도는 말하기 불안과 관련이 적다.

**오답 풀이** ①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②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시선 등 청중의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⑤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없는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다.

**06** 청중의 반응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07** <보기>는 말하기 불안 극복 체조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처럼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신체적 긴장을 풀어 주어 말하기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기>의 효과를 포함하여,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 02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302-303쪽

- 1 (1) ○ (2) × (3) ○    2 (1) 목적 (2) 정리    3 ④  
4 (1) ○ (2) × (3) ○    5 ③    6 구분, 인과

1 (1) 발표 장소에 따라 장소의 크기, 음향 및 영상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 장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발표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을 선별해야 한다.

(3)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선별한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청중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2 (1) 발표문의 구성 중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 및 목적,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한다.

(2) 발표문의 구성 중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은 '정리'이다.

3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하다면 앞에서 이미 사용한 설명 방법이라도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를 할 때 설명 방법을 중복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1) 지후는 자신의 취미인 '반려 식물 기르기'에 대해 발표하면서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 등을 소개하였다.

(2) 지후는 발표의 '도입'이 아닌 '전개' 부분에서 반려 식물의 뜻을 설명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하였다.

(3) 지후는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청중에게 반려 식물을 길러 보라는 권유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지후는 식물의 분갈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였다. 지후가 식물의 분갈이 방법에 관한 영상을 사진으로 재구성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재구성하였다.

④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실험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정보이므로, 청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6 지후는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구분'의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식물이 흡수와 방출 작용을 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활동 응용 문제

306-314쪽

- 1 ④    2 ①    3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⑤    5 ③    6 식물을 돌볼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갈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7 ③    8 ①  
9 ⑤    10 ②

1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발표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 후 계획에 따라 발표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발표 내용에 관하여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떠올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다.

2 지후는 다음 주 발표 수업에서 자신의 취미 생활인 '반려 식물 기르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3 지후가 누리집에서 찾은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에 관한 자료는 중학생인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후는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 같이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4 대상을 설명하는 발표문의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발표의 주제와 목적, 발표 순서 소개 등은 발표문의 '도입' 부분에서 제시해야 할 내용이다.

③, ④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에게 전하는 당부 등은 발표문의 '정리' 부분에서 제시해야 할 내용이다.

5 <보기>를 통해 식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지후가 작성한 개요 중 '전개 2'의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6 지후는 '전개 3'에서 식물을 돌볼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간단한 그림과 분갈이 방법을 소개한 영상을 활용하여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 중 반려 식물을 잘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후가 '전개 3'에서 활용하려고 한 두 가지의 자료를 모두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이 초록빛 친구들이 어떻게 제 삶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와 같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을 뿐,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청중에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에게 바른 자세로 인사하며 발표 예절을 지키고 있다.  
 ②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발표의 화제인 '반려 식물'을 소개하고, 앞으로 발표할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④ 정의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정서적 의지의 대상이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반려 식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반려 식물을 보며 위로를 느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반려 식물을 기르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8 반려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너무 많이 받았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인 '대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③ 예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⑤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이다.

9 지후는 교실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식물의 분갈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후가 영상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지후는 정의, 예시, 구분, 인과, 대조와 같은 설명 방법을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반려 식물 기르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② 지후는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에 관한, 출처가 분명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③ 지후는 청중을 천천히 돌아보거나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④ 지후는 '도입-전개-정리'의 구성에 따라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

성하여 반려 식물의 개념과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0 실제 공공장소에 활용된 플랜테리어의 사례를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진을 보여 주면 <보기>의 궁극증을 해결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320~321쪽

1 ④      2 ⑤      3 ①      4 ①

1 '씨앗'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숲 만들기' 활동은 텃밭에 나무 씨앗을 심어 어린나무를 직접 키운 후, 지정된 지역에 옮겨 심어 숲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어린나무를 구매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⑤ 8월부터 두 번째 활동으로 '숲 만들기'를 진행하며, 함께하고 싶은 학생은 동아리 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②, ③ '청소년 농부 되기' 활동을 통해 학교 내 텃밭에서 감자를 직접 심고 가꾸어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감자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2 동아리를 소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등 동아리 자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아리 부원들의 개인적인 성적 수준은 동아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제시한 뉴스로,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요소를 글과 함께 넣을 때 이미지의 형태, 글씨의 굵기와 모양 등으로도 제작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카드 뉴스에서 핵심 내용은 글자 크기를 키워서 내용을 강조하고 가독성 있게 전달하므로,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글자 크기를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발표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단조롭게 들려 청중이 발표 내용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을 적절히 조절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단원 마무리** 324~325쪽

1 (1) O (2) X (3) X      2 ②      3 ④      4 ③  
 5 ②      6 (1) X (2) O (3) X

1 (1)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를 의미한다.

(2) 발표는 어떠한 정보나 의견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말하기는 토의이다.

(3) 발표는 일반적으로 한 명 이상의 발표자가 청중 앞에서 말을 하고, 이후 청중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발표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발표하기 과정 중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발표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자료를 선별한 후, 선별한 자료를 예상 청중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자료를 전문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면 오히려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3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4 지후의 발표 중 '전개' 부분에서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연구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지후는 발표 장소인 교실에서 영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식물의 분갈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였고(㉠),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를 활용하였다(㉡).

**오답 풀이** ㉠. 지후는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 아닌 그림으로 보여 주었다.

㉡. 지후는 식물을 돌볼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줄글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1) 지후는 반려 식물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두 가지 연구 사례를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인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2) 지후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3) 지후는 반려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인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문해력 키우기

327~329쪽

- |1단계| 1 반려    2 선별하다    3 현명하다
- 4 조직하다    5 미생물    6 공급    7 홍보하다
- 8 취미    9 일조량    10 정의    11 수준
- 12 분비    13 흡수    14 분석    15 계기

- |2단계| 1 대처    2 도표    3 생육    4 주식
- 5 제작    6 정확    7 청중    8 분갈이
- 9 변천사    10 옷자람    11 체계적    12 구상하다
- 13 분해하다    14 직사광선

- |3단계| 1 양분    2 조성하자    3 가꾸며    4 재구성하여
- 5 도입    6 예 이끼는 주로 햇빛이 적은 음지에서 잘 자란다.    7 예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 예 우리 모듬은 다음 주 과학 시간에 발표할 탐구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말에 모이기로 하였다.
- 9 예 할머니께서 여름 내내 열심히 키운 옥수수를 수확하여 보내 주셨다.    10 예 나와 동생은 정전이 된 방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손전등을 찾았다.

|1단계|

- 1 **오답 풀이** 안정: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함.
- 2 **오답 풀이** 결합하다: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3 **오답 풀이** 막막하다: 아득하고 막연하다.
- 4 **오답 풀이** 기획하다: 일을 꾀하여 계획하다.
- 5 **오답 풀이** 영양원: 영양의 근원.
- 6 **오답 풀이** 방출: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7 **오답 풀이** 회상하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 8 **오답 풀이** 정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 9 **오답 풀이** 습도: 공기 가운데 수증기가 들어 있는 정도.
- 10 **오답 풀이** 인과: 원인과 결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1 **오답 풀이** 특성: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 12 **오답 풀이** 수치: 계산하여 얻은 값.
- 13 **오답 풀이** 대전: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 또는 그렇게 함.
- 14 **오답 풀이** 분류: 종류에 따라서 가름.
- 15 **오답 풀이** 개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소단원 평가

330~333쪽

- 01 ①    02 발표 장소인 교실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②    04 ②    05 ⑤  
 06 ④    07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08 ⑤    09 ④  
 10 반려 식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청중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1 ④    12 ③  
 13 ②

01 (나)는 발표하기 과정 중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ㄴ),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하지 확인해야 한다(ㄱ), 또한 청중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내용은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ㄷ).

**오답 풀이** 르. 발표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이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인지는 자료의 선별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ㅁ.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은 발표하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보기>에서 지후는 식물의 분갈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수집한 영상 자료에 자막을 넣어 재구성하였다. 지후가 발표할 장소가 교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실에서는 영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여 청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후가 발표를 할 장소가 교실인 점과 관련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지후가 <보기>와 같이 자료를 재구성한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3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상 청중의 요구, 관심사,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그러나 청중의 발표 경험이 풍부하지는 발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지후는 발표 수업에서 자신의 취미 생활인 '반려 식물 기르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처럼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는 발표에서는 '전개' 부분에 발표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05 (나)는 식물이 사람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두 가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반려 식물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상반된 실험 결과를 대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물 치료 결과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했다고 하였을 뿐 행복 호르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농촌 진흥청 누리집의 자료이고, (나)는 농촌 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 사례를 소개한 신문 기사이므로, (가)와 (나) 모두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로 볼 수 있다.

② (가)는 '약스층, 미생물, 영양원, 방출, 양이온, 음이온, 전자' 등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③ (가)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구분'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두 가지 연구 사례에서 반려 식물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호르몬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06 (가)는 반려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에 관한 자료이므로 '전개 2'의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 중 두 번째 항목인 '공기 정화 효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반려 식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전개 2'의 첫 번째 항목인 '정서 안정 효과'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07 <보기>는 (가)에서 설명하는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그림을 활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재구성하였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8 (가)에서 반려 식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나)에서 반려 식물은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며, (다)에서 반려 식물을 통해 실내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에 반려 식물을 두면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공기가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식물이 오염 물질을 흡수하면 뿌리 부분에 있는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분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물이 미생물을 흡수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반려 식물은 정서 안정 효과, 공기 정화 효과, 실내 장식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므로, 성인 암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려 식물 기르기를 권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부모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는 56.5퍼센트 감소하였고, 자녀들은 우울감이 20.9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했을 뿐, 자녀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반려 식물을 기를 때 부모보다 유아·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크게 감소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다)에서 '플랜테리어(Planterior)'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친 신조어로,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 공간을 꾸미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09** (가)에서는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보여 주는 두 가지 연구 사례를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시가 사용된 문장은 **ㄴ**으로, 나무가 사람보다 수명이 긴 경우에 대한 예로 은행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ㄹ**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약기를 관약기, 타약기, 현약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문장이다.

**ㄷ**.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문장이다.

**10** ①은 반려 식물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청중이 연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중이 (가)에 제시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1** (다)에서 반려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을 때와 너무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사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다)에서 발표자는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관하여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잠시 기다렸다가 발표를 이어 가고 있다. 이는 청중과 상호 작용하며 효과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지, 불확실한 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② (가)에서 '힘을 주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④ (라)에서 청중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⑤ (가), (다), (라)에서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거나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3** (나)는 유칼립투스과 고사리를 예로 들어 반려 식물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는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식물을 기를 때 적당한 햇빛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 대단원 평가

338~343쪽

- 01** ②      **02** ④      **03** 청자(딸)의 배경지식, 지적 수준  
**04** ④      **05** 지후,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한다.      **06** ⑤  
**07** ①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16** ①      **17** ②  
**18** ①      **19** ③      **20** ③      **21** 핵심 단어를 간단히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22** ④

**01** 듣기·말하기는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듣기·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듣기·말하기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말하기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상대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④ 듣기·말하기 과정에서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말할 내용에 따라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⑤ 대화 참여자가 스스로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조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02** (가)의 청자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상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상대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오곰'과 같이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함으로써 (가)의 청자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나)의 화자는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03** 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오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①과 달리 <보기>는 '오곰'이라는 단어를 딸이 이해하기 쉽게 '무릎 뒤쪽'이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다. 즉 아빠는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4** 선생님의 말을 통해 앞으로 모둠별 과제로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 모둠별 대화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둠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대화를 할 때에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지후는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현서의 의견에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현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기>와 같이 자신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점검한 학생이 지후임을 밝혔다.	<input type="checkbox"/>
<보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듣기·말하기의 개선 계획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개선 계획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06** 서아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배가 고프니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우주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서아에게 지금 과제의 주제를 정하려고 대화 중이었다고 짚어 주면서, 서아가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07** 서아는 친구들의 표정을 통해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친구들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08** ㉠은 '청소년의 바른 자세'를 모둠 과제의 주제로 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듣기·말하기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목소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③ ㉠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듣기·말하기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모둠 과제의 주제가 정해졌음을 알리는 상황에서 적절한 비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09** 서아는 교실에서 매일 보는 반 친구들을 청중으로 하여 발표를 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낯설거나 발표 공간이 익숙하지 않아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아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자신감이 없으며, 청중의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담을 느끼면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10** (나)에서 뮤지컬 배우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가)의 서아에게 적용하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실수를 할까 봐 걱정하게 되어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라)에서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며 말하기 불안 극복 체조를 하면 심리적·신체적으로 이완되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말하기에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자기 암시를 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의 뒷부분에 말하기에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에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을 선별하여, 발표자의 수준이 아니라 청중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발표 장소에 따라 활용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 청중뿐만 아니라 발표 장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발표의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세부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말할 내용을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⑤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표할 때 사용할 동작과 표정, 목소리 크기 등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도 계획해야 한다.

**13** (다)에서 지후는 반려 식물을 기르는 계기가 된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반려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반려 식물을 통해 느낀 정서적 안정감을 오랜 친구가 해 주는 위로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 발표의 화제인 반려 식물과 유사하면서도 청중에게 친숙한 반려동물을 먼저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가)에서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발표 예절을 지키고 있다.

⑤ (나)와 (다)에서 질문을 통해 발표의 화제인 '반려 식물'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4** (가)를 통해 지후가 자신의 취미 생활인 '반려 식물 기르기'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가)는 이 발표의 '도입' 부분으로, '반려 식물 기르기'에 대해 소개한다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어질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발표의 목적과 주제, 발표 순서를 소개함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16 ㉠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적 의지의 대상이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반려 식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는 '구분', ㉢은 '예시', ㉣는 '인과', ㉤는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17 (다)에서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친 신조어라는 '플랜테리어(Planterior)'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플랜테리어'의 의미를 알려 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나)에서 화면 속 그림을 순서대로 가리키며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다)에서 반려 식물을 놓아둔 후 집 안의 분위기가 훨씬 밝고 따뜻해졌다는 발표자의 경험을 제시하여, 반려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에 대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가)에서 반려 식물 기르기를 통한 실험 대상자들의 심리 상태와 호르몬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 (나)에서는 반려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 (다)에서는 반려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를 설명하여,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8 (나)에서는 반려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원리에 따른 공기 정화 과정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 (나)에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나)에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이나,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비교'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나)에 '정의'의 방법이나,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9 <보기>의 자료는 반려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 공간을 장식한 사례를 보여 주는 사진이다. (다)에서 이와 같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 청중이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반려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20 (다)에서는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을 때와 너무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반려 식물을 돌볼 때 적당한 햇빛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유칼립투스과 고사리의 예를 들어, 반려 식물을 고를 때에는 반려 식물의 생육 특성이 집의 환경과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나)에서는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청중에게 질문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라)에서는 자막이 삽입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식물을 분갈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마)에서는 청중에게 반려 식물을 길러 볼 것을 권유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1 (나)에서 발표자는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물, 햇빛, 흙을 소개하면서, 핵심 단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핵심 단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음을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2 (마)에서 발표자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때 (가)에서는 반려 식물을 잘 고르는 방법, (나)~(라)에서는 반려 식물을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인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한 걸음 더 서술형 문제

344~345쪽

- 01 (가)에서는 딸(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반면, (나)에서는 딸(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 02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해야 해. 03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말할 내용을 연습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04 반려 식물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05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6 ㉠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한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1 (가)에서 아빠는 딸이 이해하기 어려운 '오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금'을 '무릎 뒤쪽'이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상 (가)와 (나)에 나타난 아빠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바르게 비교하여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중 (가)와 (나)에 나타난 아빠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바르게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가)와 (나)에 나타난 아빠의 듣기·말하기 태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02** (가)에서 지후는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현서의 의견이 너무 식상하다고 말하며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러한 지후의 듣기·말하기 태도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에 임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평가 기준**

- Ⓢ 비언어적 표현의 측면과 언어적 표현의 측면에서 지후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비언어적 표현의 측면과 언어적 표현의 측면에서 지후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비언어적 표현의 측면과 언어적 표현의 측면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지후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서술하였다.

**03** (나)에서 서아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한편, <보기>에서는 노래 한 곡을 만 번씩 부르며 연습하면 자신감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를 (나)의 서아에게 적용하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 충분한 연습과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충분한 연습과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충분한 연습과 자신감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을 서술하였다.

**04** (가)에서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적 의지의 대상이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반려 식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 Ⓢ (가)에 나타난 설명 대상과 설명 방법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가)에 나타난 설명 대상과 설명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 (가)에 나타난 설명 대상과 설명 방법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05** <보기>는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청중은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음을 밝히고, 그 효과를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음을 밝히고 그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음을 서술하였으나, 그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06** ㉠에서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청중과 상호 작용하며 발표하면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발표 태도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 Ⓢ ㉠에 나타난 발표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거를 들어 발표자의 태도를 평가하여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 ㉠에 나타난 발표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거를 들어 발표자의 태도를 평가하였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 Ⓛ ㉠에 나타난 발표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발표자의 태도가 적절한지 여부만 밝혀 서술하였다.

**한 걸음 더 고득점 문제**

346~347쪽

-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⑤

**01** [A]에서 지후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손바닥을 마주치며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상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으므로, 듣기·말하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남학생은 손짓을 하고 여학생을 바라보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A]에서 지후는 손바닥을 마주치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의 남학생과 [A] 모두 청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A]에서 지후는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에 맞게 말하고 있다.

④ [A]에서 지후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02** ㉠에서 현서는 '작은 목소리'라는 적절하지 않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㉔ ㉕에서 서이는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으므로, 듣기·말하기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㉓ ㉔에서 우주는 서이가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으므로, 상대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㉔ ㉕에서 지후는 심드렁한 표정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㉕ ㉖에서 현서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흐름에 벗어나는 말을 한다고 볼 수 없다.

**03** 듣기·말하기를 할 때 청자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㉔와 같이 들리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04** (다)에서는 강한 빛을 좋아하는 유칼립투스과 음지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를 예로 들어, 반려 식물을 고를 때에는 식물의 생육 특성이 집의 환경과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라)에서 식물의 특성에 맞게 물을 주는 적절한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㉒ (라)에서 반려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물, 햇빛, 흙을 나열하고 있을 뿐,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분류'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㉔ (가)에서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보여 주는 두 가지 연구 사례를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㉕ (마)에서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비교'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05** (가)는 반려 식물을 기르며 얻을 수 있는 정서 안정 효과와 관련한 두 가지 연구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 변화를 도표로 재구성하면 청중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㉑에 들어갈 자료의 형태로는 '도표'가 적절하다.

**06** ㉔는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말을 하려는 것이므로, 친근한 표정으로 청중과 눈을 맞추거나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㉕는 화제를 전환하며 청중을 집중시키려는 것이므로, 손뼉을 치거나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등 청중을 주목시킬 수 있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㉖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려는 것이므로, 질문을 던진 후 청중이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잠시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rounded rectangular frame.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rounded rectangular frame.

